

정릉아차북



2 들어가는 말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5	낭만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김가희
17	정릉예술인마을에서 살다	허영미
23	철학자가 된 의사	김가희
35	정릉 마을기록 주민이야기마당	김혜경

스락스락
마음들
스치다

40	아름다운, 힐링의 도시 포르투	허영미
52	뜬금없는 ‘폭포’ 이야기	채종현
58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연수
66	헬조선에서 외치는 Not today	채다원
69	아리랑 고개	차정미
72	흥천사	채종현

오리조리 같이 파고들다

81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아서1	김미선
86	내가 운동 오지라퍼가 된 이유	임민창
92	정릉 문학지도 그리기	김가희
101	정체성의 공간성	이은아
105	마을주민을 위한 노동법 개론	홍승완
114	야책좌담 마을에서 신나게 살아볼까?	남경순
130	2018 야책문학상	
140	특별기획 여행하는 책	

* 표지: 그림_ 문병덕, 캘리그래피_ 김민정

들어가는 말

동네책방 ‘야책’을 모르는 분들께는 야책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것 같습니다. 정릉의 동네책방 호박이닝쿨책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야책입니다. 호박이닝쿨책이 이사 오기 전 채소가게였던 이 자리에는 ‘야책’라는 간판이 있었지요. 그 간판을 그대로 쓰고 싶어서 ‘야책’에 받침 ‘ㄱ’을 덧붙여 ‘야책’이 된 것입니다. 야책은 책을 읽으러, 수다를 떨러, 낭독을 하러, 밥을 먹으러 동네주민들이 모이는 재미난 곳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책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마을잡지 이름으로는 좀 기이한 <정릉야책>이란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번 <정릉야책>은 마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서울에서 마을이란 단어는 상실된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운동의 성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민주 시민의 기본시민의식입니다. 하지만 나부터가 시민의식이 높은가 돌아켜보면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네에나 동네와 사회의 공적 가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의 좋은 의미에서의 오지랖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오지랖의 관심과 참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오지랖퍼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릉에 대해 기록하는 정릉 사람들 ‘정말기록당’, 책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정릉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독서회 ‘낭만적 책읽기’,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정릉예술인마을 대표 문영성, 은퇴한 운동권 의사 박태훈 원장의 인터뷰 기사는 넓은 의미에서 <정릉야책>이 찾은 오지랖퍼로 읽어주길 바랍니다. <정릉야책>의 좌담 또한 마을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가난뱅이 자립대작

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마을살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청년들의 마을 경험과 청년들의 삶의 방식이 궁금한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정릉야책>의 특징을 꼽자면 - 편집위원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 섬세하게 삶을 읽어내는 에세이들이 볼만하다는 점입니다. 포루투칼 여행기에서부터 아들을 결혼시키는 엄마의 마음, 지도에 있는 청수폭포를 찾을 수 있을까? 셰프가 들려주는 재미난 음식 이야기, 운동 오지라퍼의 운동 이야기 등 재미난 글들이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올해 <정릉야책>이 새롭게 준비한 이벤트로 ‘야책문학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비해 실제 도착한 작품 수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야책문학상’을 실시해 응모해주신 시와 수필을 실은 점은 마을잡지에서 해낸 또 하나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야책문학상’에 도전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릉야책>은 정릉이라는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 정릉에 살거나 정릉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아가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펼쳐 가는 의미의 공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5월에 시작한 교육에서부터 따지면 거의 6개월 이상 <정릉야책>을 고민하며 글쓰고 청탁하고 교정하고 섭외하고 많은 일을 한 편집위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부디 재밌게 읽어주시길 바라며 <정릉야책>이 앞으로도 오래 오래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 편집부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낭만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릉도서관 독서동아리 <낭만적 책읽기>를 만나다

정리 김가희

녹취 차정미

지난 8월 30일, 여름의 무더위가 아직 꺾이지 않았을 시점에 동네 도서관인 <정릉도서관>에서 열리는 <사회를 담은, 문화를 담은, 정릉의 담론 - 담담담 토론회(이하 담담담 토론회)>에 참석했었다. 그 날 '담담담 토론회'는 “우리 사회 혐오문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도서관 주최 작가와의 만남이나 강연회 등의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강의를 듣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 주제를 정하고 발제와 토론에 이르기까지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행사라 그 의미가 크

게 다가왔다. 토론회 후에 독서동아리 회원들을 만나서 토론회 준비 과정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 듣고 싶었던 참에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낭만적책읽기> 회원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먼저 독서동아리 이름과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코코넛: 저희 독서동아리 이름은 <낭만적 책읽기>입니다. 낭만이란 뜻과 낭독하다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있지요. 저는 정릉도서관 사서이고 작년 3월부터 독서회 모임을 만들어 꾸려가고 있습니다.

민들레: 저는 민들레입니다. 모임 중반부터 참여하고 있어요.

웬디: 저는 웬디구요, 독서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마침 이 모임이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임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어요.

푸딩: 안녕하세요. 저는 푸딩입니다. 『안나카레리나』 읽을 때부터 이 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정릉도서관에서 러시아 문학 전문가이신 이현우 박사님을 초대해서 공개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낭만적책읽기>는 러시아문학을 읽고 있는데, 왜 러시아문학인가요? 그리고 또 작품을 소리 내서 읽는 낭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코넛: 도서관 사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독서회라고 생각해요.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니깐요. 보통 독서모임은 책을 미리 읽고 만나서 토

론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어 오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책읽기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낭독을 하면 누군가가 읽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독서를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책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제가 러시아에 빠져 있기도 했고요. 러시아 고전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용이 방대해서 혼자 읽기에는 강한 모티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어떤 책들을 읽었고 읽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것일까요?

코코넛: 낭독을 하다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웃음) 낭독독서회가 좋은 점은 어려운 책을 모두의 힘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딱히 책을 빠르게 많이 읽어야 한다는 목표는 없어요. 처음 읽은 책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그 다음에 안톤 체홉 단편선을 읽었고, 『안나 카레리나』에 이어서 지금 『전쟁과 평화』를 읽고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4권 째를 오늘 들어갑니다.

푸딩: 저는 『안나 카레리나』가 제일 좋았어요. 보통 외도를 하고 마지막에 기차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는 안나를 중심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는 안나를 둘러싼 주변이 세세하게 다가오더라구요, 안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톨스토이의 배경을 드러내는 능력, 안나를 둘러싼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주목하게 됐어요. 안나라는 중심인물 주변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톨스토이의 묘사력을 재발견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웬디: 어릴 때 읽으면서 이해 못했던 것들이 다시 읽으니까 다르게 다가오는 걸 느껴요. 저는 『죄와 벌』이 제일 재밌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내려치는 장면에서는 희열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어릴 때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회와 같은 존재를 처벌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해보이기도 해요. 도끼를 감추고 허름한 여관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의 악취와 어두컴컴한 배경까지 좋았어요. 『전쟁과 평화』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낭독하는 게 좋아서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소리 내서 읽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우리 모임은 책 읽기도 좋지만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책 내용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도 좋아요.

민들레: 저는 『전쟁과 평화』요. 전쟁과 평화라는 것 자체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거잖아요. 살고 죽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이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읽다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3권에서 남자 주인공이 큰 전투를 앞두고 내일이면 자신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념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전쟁의 반대말이 일상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일상을 지키는 군상들이 존재하죠. 이야기가 풍부한 걸 좋아하는 취향인데 『전쟁과 평화』는 이야기가 풍부하고 잘 몰랐던 역사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은 거 같아요.

웬디: 삶과 죽음이 『전쟁과 평화』에는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코코넛: 『전쟁과 평화』를 읽으면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안나 카레리나』를 볼 때는 러시아 혁명의 계기 같은 게 궁금해졌어요. 다 좋았지만 돌아보면 『안나 카레리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죄와 벌』은 조금 어려웠어요. 공리주의 철학도 나오고 알아야하는 배경이 많아서, 사실 『죄와 벌』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후미진 골목길 풍경과 시궁창 냄새와 찌릿한 냄새가 너무 실감나서 그것을 상기하는 느낌이 불편하고 싫었어요,

웬디: 저는 그 냄새가 좋아서 냄새를 맡고 싶을 정도였는데. (웃음)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좋아요.

민들레: 장편소설이다 보니 인간들의 다양한 면들이 나오니까, 공감이 가는 캐릭터가 다 달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에 대해 같은 책을 읽더라도 공감이 가는 캐릭터가 다 다른 점을 확인하는 것이 같이 읽는 재미 중 하나예요.

코코넛: 『안나 카레리나』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래빈. 래빈의 풀 베기 장면이었어요. 풀 베는 장면만 이렇게 두껍거든요. 낭독하면서 드디어 풀을 다 베었다고 기뻐했었던 기억이 나요. 뮤지컬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풀 베는 장면만 7분 가량 나오더라구요.

웬디: 코코넛과 난 정말 극과 극인가봐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아무 생각 없이 래빈과 같이 풀을 베고 싶어지던데요? 읽으면서 나는 막 풀을 베고 있었는데. (웃음)

코코넛: 싫으면서도 좋았던 게 노동의 참맛, 노동의 희열과 인간의 만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커다란 낫을 들고 농민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풀을 베는 장면을 통해 톨스토이는 노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죠. 그리고 러시아 사회의 구조적 한계도 보여주잖아요. 오래된 작품이고 다른 나라의 일인데도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야말로 문학이 지니는 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어요. 안나가 특별히 좋았던 이유는 거창한 사회적 배경 같은 게 아니라 안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감정들과 조우를 했던 것 같아서예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감정들이 잘 표현되고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문학작품을 읽을 때의 즐거움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문학을 읽는 행위는 작품 속 인물들과 동일시하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감정의 변화 뿐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간접체험하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철학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게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 사람들이 왜 책을 읽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결국 책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문학에서 잠시 벗어나서 '담담담 토론회'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담담담 토론회'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독서동아리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토론회를 기획하셨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코넛: 도서관에서 마을 공론회장을 열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이 낭독 독서회라고 해서 책만 읽고 끝나지는 않고 근황토크도 하면서 작품과 견주어 현재 사회의 이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

뉘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리끼리만 하는 대화로 끝내지 말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모여서 사회적인 이슈나 문학적 이슈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페미니즘이라는 주제, 구체적으로는 혐오라는 주제를 정하였고 발제는 동아리 대표인 라라와 민들레님이 총대를 메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했어요.

민들레: 발제자로 참여했었는데요. 혐오문제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때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의제로 삼고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하든 법제화를 하든 필요한 게 있으면 하자라는 의견을 말했어요.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건강한 담론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남성분들 중에는 이런 문제 앞에서 싸움이 될까봐 피하거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남성을 변호하려는 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대립적인 게 아니고 대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닌데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면 안타깝워요. 어쨌든 이번 토론회는 좋았어요. 대부분의 도서관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성인 이용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접근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 프로그램이서 좋았습니다.

정릉도서관이 마을에서 담론과 공론화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관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서님께서 계시니까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코코넛: 저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진행해왔는데요. 성북구립도서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3년 전부터 ‘마을인수다’를 계기로 도서관이 공론회장을 만드는 것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되었어요. 외부에서는 도서관이 왜 사회운동하냐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경험한다는 게 중요해요. 페미니즘 토론회를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토론회를 하니까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 때 도서관은 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사, 사설, 논문, 책 등의 콜렉션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그런 자료들을 접하며 스스로 생각을 키우게 도와주고 그런 과정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간 후에도 계속 스스로를 성장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문턱이 가장 낮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짧은 시간 만났지만 <낭만적 책읽기>는 책을 같이 읽는 즐거움은 물론 나와 다른 관점이나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서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지금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셨잖아요. **서로 만나는 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 모임의 비결이나 모임의 매력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코코넛: 맞아요. 신기한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이 모임에서는 ‘책만 읽을 거야, 사적인 관계는 원치 않아요. 단톡도 싫구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들 모든 마음의 빗장을 해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쉼터가 된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모였고,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데 서로간의 존중 속에서 자유



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킬 것들을 잘 지키면서 개인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위로도 받고요.

푸딩: 저는 여러 모임에 소속되어있는데, 이 모임은 속도가 다른 모임과는 달라요. 다른 모임들은 속도가 빨라요, 만만치 않은 이론서 같은 책들도 한 번에 한 권씩 끝내곤 해요. 다들 빨리 봐야한다는 급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임은 천천히 음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지독, 즉 천천히 읽는 모임은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코코넛: 사실 모임에 자주 빠지는 분이 계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힘든가? 몇 번 빠지면 아웃과 같은 규칙이 필요할까하는 갈등도 있어요. 각자의 속도도 존중해야 하지만 작은 조직이라도 계속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규칙과 약속이 지켜져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웬디: 규칙 얘기는 새롭네요. 혼자서 많이 고민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규칙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코코넛: 그런데 규칙을 정하면 어떤 분들은 한두 번씩 빠지다가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도 같아요. 아, 낭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집에서 다시 읽을 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읽은 페이지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생각나요. 어떤 사람의 육성으로 읽느냐에 따라 그 페이지의 느낌이 달라지는 게 신기해요,

모임에서 이 분은 조금 재밌다거나 독특한 취향이 있다거나 하는 회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코코넛: 그건 항상 라라가 웬디한테 느끼는 건데요.

민들레: 나도 웬디가 재밌어요. 『죄와 벌』에서도 쾌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안나가 자살하는 장면에서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웬디는 다르게 느끼는 게 많아서 독특한 것 같아요.

웬디: 왜 안나가 희생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독특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모임이 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코코넛: 네 동의해요. 독특하고 나랑은 다르지만 나의 허용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웬디: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도 같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모임은 밤에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도 하염없이 계속 책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우리 모임은 친하다는 표현보다 돈독하다고 해야 할까? 친한 것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있

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코코넛: 맞아요, 서로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임을 많이 좋아해요.

동네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며 술 한 잔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담담담 토론회에 이어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모임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전쟁과 평화』도 마지막 4권 째를 읽으시던데 독서회의 다음 작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코코넛: 우리 모임도 고전 문학을 읽고 있고, <북투게더>라는 독서회는 6년째 고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독서회 <논스톱>도 인문학 기반의 책을 선정해서 발제 토론하는 모임이구요. 모든 학문을 관통하는 게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익숙한 방식인 문학을 통해서 철학의 기초를 배워보자라는 취지로 <문학으로 철학읽기>라는 강의를 기획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의 강의로 기획중이에요. 선정된 문학 작품마다 철학주제가 다른데 책을 꼭 읽어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민들레: 앞으로 꾸준히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요. 다음 책은 끝날 때 정하는데 저는 『닥터 지바고』를 읽고 싶어요. 아, 그 전에 프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읽어보라는 추천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읽을 것 같네요.

푸딩: 모임에 바라는 거요? 지금처럼, 그게 어려운 거죠.

민들레: 지금처럼, 좋네요. 꼭 발전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꼭 뭘 해야 하고 바빠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코코넛 : 상대적으로 제가 어리기 때문에 삶을 먼저 사신 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발령이 날 수가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이 모임의 가치가 증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모임이 잘 유지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웬디 : 저도 지금에서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푸딩 말대로 이대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 모임의 제3의 멤버가 추천해주신 책인데 이 제3의 멤버는 바로 신경림 선생님이다. 고등학교 때 러시아 문학을 다 읽으셨다는 선생님은 독서회 회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신경림 선생님은 어떤 책을 읽는지 물어보고 책까지 추천해줄 정도로 이 모임에 애정이 있으신가 보다.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 뵙고 싶어하는 데 빨리 건강이 좋아지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서로 모르는 이웃으로 살다가 러시아 문학 낭독회인 <낭만적책읽기> 분들을 만나보니 독서회 이름처럼 낭만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 끝나고 정리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 분들은 작품 얘기에 빠져들어 이미 『전쟁과 평화』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짧은 시간이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정릉도서관에서, 동네에서 앞으로 자주 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아는 이웃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서로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하는 일들이 아직 즐거워서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릉예술인마을에서 살다

문영선 전 정릉예술인마을 대표

정리 허영미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10월 24일, 정릉예술인마을에 살고 있는 문영선 전 정릉예술인마을 대표를 만났다. 언제나 밝고 활기찬 그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그녀는 백일도 안 지난 아들을 낳았다 안았다가를 반복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많은 얘기를 들려줬다.

정릉예술인마을은 어떤 취지로 생겼는지요?

문영선: 일단 국가에서 만든 거고요.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이 성북구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의 정릉예술인마을이 만들어졌어요. 이곳을 만들면서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 1호죠. 이곳을 기점으로 하월곡동에 ‘창조인 빌’이라는 임대주택이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는 세대주도 많고 크고 넓은 지하주차장도 있고 잘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릉동 794-11에 위치한 정릉예술인마을은 지상 5층의 2개 동 건물로, 1~2인 가구 11가구와 3인 이상 가구 8가구 등 총 19가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공급하고 성북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지역 예술가들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다세대 공공주택이다. 김전 구청장은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청년 창업가를 위한 ‘도전숙’의 노하우를 살려 정릉예술인마을을 탄생시켰다.

정릉예술인마을에는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거주하나요?

문영선: 저희 세대가 19세대이고 총 19세대 중에 18세대가 입주되어서 살고 있어요. 속해 있는 예술군은 굉장히 다양해요. 연극, 영화 연출, 시나리오, 무대미술, 연극배우, 미술, 퍼포먼스, 사진, 디자이너 그리고 뮤지컬 노래 작사, 작곡, 가수도 있고 다양하지요.

여기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문영선: 그렇죠. 예술가에 한하고 나이 제한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주 조건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예술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 때 경쟁자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한 4:1에서 5:1 정도였던 거 같아요.

어떻게 정릉예술인마을을 알게 되셨나요?

문영선: 저희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지인도 예술인이었고 예술인들이 공모전 같은데 많이 내잖아요. 그런 공모를 찾아 보니까 이런 정보를 예술인들이 많이 알게 됐던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입주하게 되신 게 그럼 문영선 씨는 어떤 분야로 하게 되신 건

지요?

문영선: 제 남편이 설치 미술가여서, 남편이 세대주로 입주하게 됐죠. 남편은 성북동이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대구에 가서 살기도 했었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성북동에서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었죠.

그럼 신혼 생활을 하시면서도 성북구에서 지역 활동도 많이 하셨겠네요?

문영선: 성북동이라는 동네에는 연극하는 분, 영화하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물론 미술 하는 분들도 많이 사세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다 자주 보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주 보다 보니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술친구도 되고, 친해져서 동네 친구가 되고 그러다가 동네 친구들이 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해서 같이 갔지요. 성북예술창작터라고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네 갤러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큐레이터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런 시작을 통해서 남편도 동네에서 미술 활동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같이 지역 예술 활동에 동참을 하게 됐죠.

남편 분, 정기업 작가님도 활동을 하시지만 문영선 씨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문영선: 지금 제가 하는 활동은 동네 축제 행사 MC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외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성북문화재단에서 주최했던 성북예술동이라는 좀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북동 투어 기획을 했고 기획을 하면

서 사람들 모집도 하고 같이 가이드를 다니는, 좀 재밌는 행사를 했었어요.
정릉예술인마을에서는 며칠 전에 임기가 끝났는데, 한 2년 2개월 정도 정릉
예술인마을 대표를 맡아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거 같아요. 초기여서 할 일
도 많았고, 제가 해 보고 싶었던 일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정릉예술인마을에선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문영선: 자질구레한 일들. 사람이 주거하고 살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민원
처리서부터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어요. 제가 동네 MC를 맡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조금이라고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을 소개도 하고 예술인들과 이런 저런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비 400만원 정도 지원 받아 5개월 수업 운영을 했었어요.



수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업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셨나요?

문영선: 수업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가족공예,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 영화 찍기, 아름다운 중창하기 등을 했어요. 동네 분들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매년 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워요.

정릉예술인마을에 살면서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문영선: 우선 제일 좋은 점은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은 예를 들어 음악하시는 분들이나, 연극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끔 연습을 하시는데 일반 주택에서 하면 민원이 들어 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요즘은 층간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들 예술인이어서 그런 점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커요. 이런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릉예술인마을에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성북구에서 살면서 뭔가를 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문영선: (웃으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기장에 써야 될 것 같은 질문인데요? 대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씩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다 보니 거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은 지역행사 사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충실하게 해서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회자가 되고 싶고 태어난 아들을 잘 키우고, 지금보다 여유가 생기면 연기를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지금 같아서 꿈같은 얘인데 그런 꿈이 있지요.

배우자이신 정기엽 작가님은 요즘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영선: 남편 정기엽 작가는 늘 왕성한 작업 활동을 해요. 올해 했던 작업은 주로 안개를 소재로 많이 했구요. 최근에는 포항 스틸아트에 초대 되어서 스틸 소재로 처음 만든 작품이 포항에 전시 되어 있는 중이에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전시는 제주시민회관에서 11월 9일부터 시작하는 2018 제주국제아트 페어에 참가하구요. 이번 주 성북가압장에서 오픈하는 정기엽 작가 외에 다른 작가 분들이 기획한 전시도 진행됩니다.

앞으로 정릉예술인마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요?

문영선: 여기 주거 조건이 2년마다 계약 갱신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재계약 기준 조건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없어야 해요. 분양권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류로 계속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거지요. 앞으로 임대주택이 더 많아 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예술가에 국한 된 임대주택이라면 앞으로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조금 더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래요.

어둑어둑 해가 지고, 조금은 찬 공기가 실내를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바람처럼 예술가들이 좋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와 예쁜 아기에게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다.



철학자가 된 의사

전 상계주민의원 박태훈 원장님을 만나다

정리 김가희

이번 박태훈 원장님 인터뷰는 원장님의 인생사를 꼭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야책 권장(김정훈)의 강력한 제안으로 이뤄졌다. 최근까지 상계주민의원 원장과 함께걸음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를 지내신 박태훈 원장님은 의사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현재는 의원을 접고 신학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오디오 앰프 제작이 취미이기도 한 원장님을 인터뷰하러 가는 길은 이야기 들을 생각 뿐 아니라 음악을 들을 생각에도 설레었다.

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을 나와 서울을 빠져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긴 줄의 사람들을 지나 상계주민의원이었던 건물에 다다랐다.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계신 원장님을 따라 의원 건물로 들어섰다. 건물 옆에 있는 철

대문을 지나 건물 입구까지 가는 길은 손님맞이 대청소를 했는지 깨끗이 물 청소가 되어 있었다. 건물로 들어서자 벽과 문에 교황님 사진이나 성경 구절이 적힌 오래된 액자들이 정갈하게 걸려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병원이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간판과 진료실이라는 표지판, 그리고 의료기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어 병원에 들어선 느낌을 받았다.

병원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한쪽 벽면에 그 벽면을 전부 차지하는 오디오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엠프 제작이 취미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연장에서나 봄직한 큰 오디오 엠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이것은 취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원장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다. 그런데 2층에 있는 엠프는 지인이 만든 것이고 진짜는 3층 작업실에 있다고 알려주신다. 원장님을 포함해서 아니 원장님이 더 좋아하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원장님과 우리 일행 모두는 모의라도 한 듯 인터뷰는 뒤로 젖혀두고 음악을 먼저 듣기로 합의를 하고는 3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음악을 듣는 삼사십 분 동안 원장님은 한 번도 자리에 앉지 않으신 채 음악을 선곡하고 들려주시면서 같이 감상하셨다. 2층 것의 두 배는 될 것 같은 진공관 엠프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는 내 심장을 바로 강타하여 나의 모든 감각을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주변 공기들을 소리가 채우며 작업실 전체가 음악이 되어버렸다. 오디오라는 물건이 연주자들의 연주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텐데 그때 들은 소리는 연주자가 옆에서 들려주는 음악 이상으로 강렬한 느낌이 되어 다가왔다. 진공관으로 뽑어져 나오며 소리가 더 증폭되기 때문일까? 혼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추측도 해 봤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 소리는 9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듣던 오디오 소리라고 한다. 시간이동을 해 내가 마치 190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오디오 메이커로서 음악을 듣는 느낌은 어떨까 상상해본다. 음악을 듣고 2층으로 내려오면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간은 천국 같은 곳일 텐데 가끔씩 이 공간을 오픈하는 이벤트를 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왔다. 박태훈 원장님은 공적인 의미로 쓰일 데만 있으면 기증해주시겠다 말씀하신다. 당장에라도 들고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저 큰 진공관을 들여놓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지 적당한 곳이 생각나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음악을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서 즐기는 방법도 있지만 악기를 만들거나 오디오 메이커로서 즐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관찰과 탐구의 자세가 부러웠다. 소리가 좋아도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진공관을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위인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항상 살펴게 된다. 발명가의 자세는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일일 것이다. 의사가 되어 의사로

서 사회운동을 해오셨지만 원장님 인생을 한 가지 서사로 이야기하자면 탐구하는 삶 즉 공부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제가 되고 싶었던 소년 박태훈은 말 그대로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보내며 신부 되는 것을 포기했다. 공부도 안 하고 삶이 안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서점에서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면 자신도 스스로 치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다.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성가시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행복해지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나? 단순해야 하는데,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해져야 하는데. 행복이라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분석이 가능하구나.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를 잘 컨트롤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학과를 가야지 했지요, 심리를 컨트롤하면 나도 컨트롤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없었다. 그때 마침 누가 정신과를 가라고 했는데 그때는 정신과가 뭔지도 몰랐다. 의대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고3 뒤늦은 때에 이과 공부를 시작했고 재수를 해서 가톨릭 의대에 입학했다.

대학생활은 낭만적이었다. 미팅도 하고 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생활을 했다. 형이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어서 무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서 살았다. 그러다 박정희가 죽고 형이 특사로 나오

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다음 해 5.18광주 민주화항쟁이 일어났고 광주항쟁 이후 청년 박태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5.18 광주가 바꾼 삶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울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5월 17일에 갑자기 휴교령이 내려져 야간열차를 타고 고향인 목포로 내려갔는데 그 열차가 마지막 열차였다. 그때는 전화는 물론 교통도 두절된 상태였고 목포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2~3일 후에 광주 피난민들이 목포로 내려와서 계엄군들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총으로 무조건 갈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원장님은 몸을 피했다. 중앙정부에서 형을 찾으러 집에 다녀가긴 했다. 그때는 원장님 형 같이 호남 출신에 학생운동한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서 김대중의 지령을 받고 했다는 조직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런 사건으로 디제이를 엮어 사형시키려 하던 시절이었다. 결국 원장님 형은 잡혀서 고문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하지만 형은 아무 말이 없었다.

광주항쟁 이후 원장님 삶은 바뀌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정신과 의사가 된다는 게 무의미했다. 인간의 행복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 정의였다. 당시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 생각했다(아직도 정확한 집계 없음).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죽는 게 두려워 피해 다녔다는 부채감이 컸다.

그때부터는 삶에 대한 낭만적인 전망은 없어졌어요.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사회(군부독재)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사회윤리의식이

생기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학생, 청년, 노동자들이었잖아요. 운동 주체 세력은 학생운동가, 지역 운동가였지만 이름도 모르게 처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약자들이 많았어요. 광주 양동시장의 아줌마들은 학생들을 숨겨주고 챙겨주고 돈을 내서 광주를 지키는 시민군을 먹였는데 광주에서 이런 민중공동체적인 현상이 있었던 거죠.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이후 사회운동의 원동력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하였고 학생과 사회운동에도 큰 영감을 줬어요. 광주항쟁을 잘 알면 아무런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슬프고 고통이고 사랑이에요. 명예욕도 욕심도 없이 광주라는 도시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들을 먹이고 지원하는 자희생정신이 형성되었던 거죠.

호남 특히 광주 사람들은 5월만 되면 트라우마 증후군이 있다. 5월만 되면 말이 없고 대화도 사라진다. 5월을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슬픔이 있고 아직도 고통받고 두려움을 느낀다. 박태훈 원장님도 그 후로 십여 년 정도까지 군인을 보면 반사적으로 두려웠다고 하신다. 그저 푸른색만 보아도 눈을 돌리셨다고. 뇌리에 공부보다는 늘 살고 죽는 게 문제였다. 사회에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용산 청과물시장의 행려인들과 노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나 광주나 똑같다고 느끼며 그 분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하신다.

그렇게 용산 베들레헴에서 일을 했다. 공부와 병행을 하다 보니 결국 낙제를 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원을 나온 나그네들이 늘 잡자리를 청하고

술을 권했다. 베들레헴을 나와 박태훈 원장님도 서울에서 집 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학교 라카룸에서 자거나 2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자기도 하고 병원 세미나실에서 자기도 했다. 의사가 된다는 생각보다 사회개혁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앞섰고 그러다 보니 공부에 집중을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유능한 의사가 되기 위해 충분히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신다. 나중에 의사는 의사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주위에서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 사회변혁 운동하는 의사들이 볼 모델이었고 늘 의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전문의를 못 했다. 이 철규 의문사 사건의 부검과 지역의 핵 공해문제를 이슈화하는 영광 핵발전소 역학조사에 참여하면서 당국의 주의 대상이 되었고 취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 있으면서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결혼 후 경제적으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워 93년도에 의원 개업을 하게 된다.

낙도, 우이도, 함평에서 공중보건의를 할 때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치료 중심의 서양의학에 대한 반감 때문이기도 했다. 서양의학은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는 아무래도 5.18 이후 학문에서도 기존 체계의 많은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민중적이고 예방의학 중심의 저항적인 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환경운동의 태동도 광주에서 있었다. 핵발전소를 왜 영광에 짓느냐? 걱정도 하고 의심도 했다. 영광은 법성포 조기가 유명한 곳이고 수심도 낮은 지역으로 원자로를 바닷물로 냉각시켜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야 하는데 오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무늬아가 유산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국에서는 핵발전소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핵발전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렸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

학조사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는데 역학적으로 적절한 비교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표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공정하고 정밀하게 진행하기만 했더라도 주민과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영광 핵발전소 역학조사 전에 조선대 학생이었던 이철규 의문사 사건의 부검에도 참석했는데 이것은 원장님이 보건소에 근무할 때 새날의원의 자원 봉사자 분이 바로 이철규 열사의 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그 분과 조선대 학생회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당시 집에 아내가 협박 전화도 받았는데 학생들이 보호한다고 오토바이를 태워서 데려다주곤 했다. 해부학이든 법의학이든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했는데 당시 정치상황은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했고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었다. 따라서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원장님의 국과수 의견에 대한 반론은 법의학적,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사 한 사람의 의견으로 치부되었다. 국과수에 가서 국과수의 방법론적 문제점도 지적하며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이 사건은 아직도 의문사로 남아있다.

철학과 인문학이 바탕이 돼야

개업 후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돈을 벌어야만 해서 개업을 하고 나니 사회활동가도 아니고 단순히 의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개업의로만 사는 것은 박태훈 원장님의 운명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학창시절부터 잘 알던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대표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인연이 되어서 인의협

사업국장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시절 친구의 설득으로 인의협에서 섬 의료사업을 맡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박태훈 원장님 본인이 직접 노화도와 진도 조도까지 내려가서 병원 일을 하게 됐다.

진도에서 2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지역보건센터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또 뿌리치지 못했다. 이 역시 준비작업만 하고 나와야지 했다가 센터장까지 했다. 하지만 사람들 만나는 일이 주된 일이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직원과 환자들을 위한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 보니 꼭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일에 가장 적합한 관리자로 전문 사회복지사를 천거하고 나왔다. 그러다가 노원에서 의료생협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피하고 싶었지만 준비 과정을 같이 했다. 3년 여 동안 바로 이곳에서 많이 모였다. 의원을 하려면 내시경, 초음파 등의 검진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와야 될 텐데 하고 조언하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은 한의원을 하자고 했다.

우리나라 생협은 일본의 생협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만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의료적인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 생각도 다르다. 일본의 생협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우리나라 생협 조합원들은 수혜 위주의 성향이 강하다. 혜택을 받는 사람과 후원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일본은 직원, 수혜



자, 후원자 삼박자가 맞아 돌아간다. 일본은 수가가 높으니까 흑자가 가능하고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니 회원들이 보는 혜택도 많다. 실질적으로 조합 생활이 기쁘고 건강, 상담, 운동 등을 조합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일반 병원과 차이가 없으면 생협을 할 필요가 없다. 의료생협의 조합원은 소비자로서 감기가 걸려도, 배가 아파도, 쉬고 싶어도,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의사와 늘 상담하고 병원은 늘 회원들이랑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가 조합원 중에서 의사도 나오는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 돈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고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올바른 협동조합이 가능해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저항하는 것이니 대안을 만드는 공동체여야 해요.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이 이미 죽었으니 지금에 맞추어 다시 살려야 하고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생활비가 없어 탈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조합원들이 얼마씩 나서 공동체 활동가의 생활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야지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돈 벌면 조합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합이 커져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협동조합에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지 깊이 공부해야 해요. 탈퇴할 때 출자금을 내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탈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감 문제죠.

협동조합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한 스무 명의 사람만 있으면 협동조합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신념이 아름다워서 그 뜻과 비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후원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협동조합 정신에 동의할 때 가입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려면 공부야 늘 필요하다. 만날 때마다 30분씩이라도 공부해야 한다.

성공을 위한 정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활동가는 연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원장님의 이런 말씀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그 동안의 걱정과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협동조합 이야기에서도 공부를 강조한 원장님은 같이 온 책방 원장에게 사람들의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적 큐레이터가 되라고 조언해주신다. 책방을 찾는 사람들의 지적인 조력자가 되어 대화를 나누며 사서가 되기도 철학자가 되기도 하라고 말씀하신다. 철학도 잘 못 접근하면 혼동 속에 빠질 수 있으니 계통을 알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하신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를 잘 못 읽으면 정신과 육체를 가르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 하고 현대철학에서 데카르트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계통을 제시해주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신다. 지금 신학을 공부하니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고 자기 삶을 철학이 풍요롭게 한다는 인문학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덧붙이신다.

속세를 떠나서 신학만 해야지 했는데 또 하나의 속세를 보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신학적 체계와 신자유주의 신학자의 신학적 생각과 부딪히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설득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도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타인에게 나의 신학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철학도 이해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 철학 공부가 도움이 돼요. 철학은 끊고 신학만 할 거야 했는데, 철학의 베이스가 없는 신학은 나만의 신학이죠. 철학은 사람과 사람의 설득인 거죠. 이성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떠한 명제가 진리이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가깝다, 등을 탐색하면서 탄탄한 근거를 찾는데, 이런 것들은 철학이 얘기해주는 거죠. 학문은

어떤 것이든지 철학 위에 서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호응을 받지 못
해요. 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게 신
학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정신에 맞아야 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에도 보
편적인 목소리로 심금을 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 체계, 지성이 여전
히 중요하죠. 진리에 대한 철저함입니다. 거기에서도 매우 깊은 신앙적 감동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의 토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나
라는 그런 풍토가 부족해요. 학문적 철저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
주장, 인문학적 운동이 중요해요.

의대 입학, 광주항쟁, 베들레헴. 이철규 의문사 사건, 영광 핵발전소 역학조
사, 협동조합, 철학, 신학 이야기를 통과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인문학적 운
동이 중요하다는 결말로 끝났다. 박태훈 원장님의 조언과 소망대로 호박이
넉쿨책이 인문학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원
장님이 가시는 학문적 길에도 밝은 빛이 비추기를 기원한다.

P.S. 인터뷰를 마치고 박태훈 원장님은 김치가 아주 맛있는 노원 맛집인 칼
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사주셨다. 저녁을 먹으며 원장님이 소리에 꽂히시기
전에 빛에 꽂혀서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빛과 소리
의 황홀감을 알고 있는 원장님의 세계를 짧은 인터뷰로 다 담을 수 없어 아쉬
울 뿐이다.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음악 들으러 꼭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록을 했다. 정릉에서 만나 ‘정말기록당’

정릉 마을기록 주민이야기마당

정리 김혜경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강 교수는 “자기가 사는 동네 골목을 여행해 보세요. 사는 곳부터 애정을 가지고 잘 알아보는 것,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 동네를 돌아보며, 골목과 건물들을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오라는 과제를 내준다. 그리고 건축학과 승민과 음대생 서연은 과제를 하기 위해 정릉의 골목을 탐방한다.

영화 속 <건축학개론>의 승민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에서 정릉 골목길을 걸으면서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그 기록을 책으로 펴낸 건축가가 있다. 『시간의 힘』의 저자 임석재 교수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분위기를 거의 간직하고 있는 정릉에 정감을 느껴 정릉을 자주 산책한다고 한다.

『시간의 힘』 중 ‘정릉천 나들이/시간을 산책하다’ 편에 의하면 정릉은 1960~1970년대 서민주택, 1980년대 양옥과 1990년대 연립주택, 최근의 빌라에 이르기까지 시간여행을 하기에 좋은 일종의 ‘주택박물관’ 과도 같은 곳이라고 소개한다.

정릉은 주택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전통, 정릉 문인 및 예술가들의 스토리 등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러한 정릉 마을의 역사, 공

간,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하는 ‘정말기록당’ 도 승민이와 임석재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릉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마을을 담아낸다.

정말기록당의 최연희 간사(전 정릉2동 마을코디)와 지난 10월 18일 한 차 집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안녕하세요. 정말기록당 이름이 독특한데 무슨 뜻인가요?

최연희: 정릉 마을기록 주민이야기마당의 줄임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릉 마을주민들이 정릉에 대해 기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최연희: 정릉이 마을주민들에 의해 기록된 것은 2012년이예요. ‘우리 동네 능말’이라는 표제의 마을잡지에 대한 기획이 선정되어 주민들이 모여서 발간했어요. 2013년에는 ‘능말이야기’ 마을잡지가 서울시의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에 선정됐어요. 그 덕분에 마을 잡지를 만들었던 정릉 마을주민들과 ‘정릉마을기록사업단’을 꾸렸어요. 곧이어 정말넷(정릉 4개동 마을활동 주민네트워크 모임)을 제안하게 되면서 정말기록당이 활동하고 있어요.

2017년에도 정릉에 관한 책자들을 발간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책들을 만드셨나요?

최연희: 정릉의 역사, 문화, 인물, 공간, 스토리 등을 엮어서 만든 정릉 스토리북, 리소스 북, 마을지도, 정릉 마을 한바퀴를 발간했어요.

정릉 마을 한바퀴는 스토리텔링 책자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최연희: 손가정, 배밭골, 산신제, 영단주택과 도시형 한옥, 정릉의 문인과 독립운동가 등을 소재로 주민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자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정릉에 사셨던 독립운동가 유우석(1899~1968) 선생은 유관순 열사의 오빠예요. 유우석 선생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어요. 1968년 성북구 아리랑로 5길 128(정릉동 604-16번지)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별세했어요. 너무 가난한 나머지 돌아가신 부모님과 유관순 열사의 제사를 지낼 때 초 한 자루로 지낼 정도였다고 해요. 1990년 뒤늦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고 현재 유우석 집이 있던 자리에는 돈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정릉 곳곳을 다니시고 마을기록을 하시면서 정릉에 뭐 특별한 것 발견하신 것 없으세요?

최연희: 정릉에는 유난히 방앗간, 떡집이 많아요. 아마도 정릉이 북한산 기슭에 있어서 예전부터 배밭골 산신제, 손가정 산신제, 한상대동 산신제를 행해왔고 굿당, 점집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주민들과 함께 마을기록을 하시면서 배우시고 느끼신 게 많으실 텐데, 앞으로 정말기록당이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최연희: 올해부터 <정말기록당 실전 워크숍_정릉을 기록하자!>라는 ‘정릉 마을아카이브’ 강좌를 열어 마을 기록에 대한 공부를 주민들과 하고 있어요. 기록의 개념, 우리나라 기록의 역사, 기록관리 방법과 절차, 기록방법 중 주민이 응용할 수 있는 것 등등 이런 내용이에요. 기록공부를 할수록 주민들이 조금 힘들어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해요. 정말기록당이 정릉의 마을기록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마을주민들에 의해 기록된 마을이야기는 아니지만 2001년 KBS 스페셜 ‘난곡의 사계, 마지막 달동네 1년의 기록’은 우리나라 최대의 달동네 난곡동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겪었던 난곡 주민들의 이야기를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다.

옥수동을 기록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옥수동 트러스트’는 드라마 <서울의 달>의 배경이었던 달동네 옥수동이 2011년 재개발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떠나고 사라져 가는 동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정릉은 난곡동이나 옥수동의 기록과는 달리 어제 봤던 골목길을 내일, 모래에도 그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앞으로도 정릉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다양한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계속 발굴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정말기록당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아름다운
힐링의 도시
포르투

글/사진 허영미

4년 전, 나와 의 약속, 1년에 한번 해외 여행가기!

이런 마음을 먹은 후 매년 배낭여행 하듯, 캐리어 하나 끌고 혼자 여행을 다녔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모두, 나와 일정을 맞춰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딸아이가 이직으로 시간이 생기면서 함께했다. 갑작스런 여행 계획으로 항공이며 숙소 예약 등으로 바쁘게 준비해야만 했다. 나는 본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만 메모를 하고 떠난다.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함께여서 조금 더 신경을 썼지만 나라와 도시를 정하고 어느 도시에서 얼마나 지낼지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여행지에서 결정했다.

첫 여행지는 파리였다. 파리는 세 번째 방문이다. 파리를 좋아하는 나와 딸은 이미 다녀온 파리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포르투갈. 리스본과 포르투를 가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많이 알지만, 포르투가 더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르투 일정을 더 길게 잡았다.

Day 1 in Porto

빌바오, 리스본을 거쳐 포르투에 갔다. 리스본에서 포르투로 떠나는 날은 맑고 화창한 눈부신 날이었다. 포르투로 가는 기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린다. 해안가 작은 마을을 지나 2시간 후 캄파냐(CAMPANHA) 기차역에서 내려 상투벤 역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탔다. 포르투 상투벤 역은 관광지로도 매우 유명한 곳이다, 아줄레주 문양의 타일로 꾸며진 벽들이 참 예쁘다. 상투벤 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이라고도 한다.

포르투에서의 첫 날에는 혼자 산책을 나섰다. 걷다 보니, 포르투 대성당이 있는 광장이었다. 잠깐 산책이나 할 생각으로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포르투

대성당 광장에서 내려다보이는 멋진 풍경을 보니 발이 멈추질 않았다. 성당을 지나 바로 도루강 동루이 1세 다리로 향했다. 증축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는 동 루이 1세 다리는 에펠탑으로 유명한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의 제자 테오필 세이리그가 설계했다고 한다.

다리에서 내려다보이는 시내 전경과 노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최고의 전망인 2층 동루이 1세 다리는 굉장히 높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고, 2층은 트램과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낮에 봐도 아름답지만, 노을과 야경이 멋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다리가 꽤 높게 되어 있어서 2층 다리를 걷다 철 틈 사이로 강이 보이면 아찔하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무서움도 잊고 다리 건너까지 다녀왔다. 사실 6일 여정으로 계획하고 오면서 너무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다. 기우였다. 너무 매력적인 포르투의 모습에 빠져 버렸기 때문이다.

Day 2 in porto

첫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마트에 들러 과일이랑 가지, 햄, 주스, 요거트, 빵을 샀다. 햄과 빵을 구워 과일이랑 주스로 아침 식사를 했다. 숙소가 아파트먼트여서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었다. 막상 차려 놓으니 호텔 조식을 먹는 것처럼 맛있고 기분이 좋았다. 집에서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안 먹는 편인데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남다른 느낌이었다.

이 곳 포르투는 도시가 작은 편이어서 굳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녀도 좋다. 동 루이1세 다리 이외에 한눈에 감상하기 가장 좋은 클레리 구스 종탑이 있다. 우린 전망대에 오르지 않고 성당을 보고나서 천천히 걸어 해리 포터 서점으로 유명한 웰루서점으로 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랠루서점은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영감을 얻었다는 서점이다. 유명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입장료 5유로를 내고 티켓을 구입하고 입장을 한다. 서점에서 책을 구매 할 때 티켓을 제출하면 책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사기 보다는 서점을 둘러보고 사진만 찍고 나오는 듯 했다. 우리도 다음 여행지가 없었으면 책을 샀을 텐데 짐을 더 늘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 보고만 나왔다. 작은 규모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아 여유롭게 둘러보기는 쉽지 않았다. 천정의 스테인글라스와 붉은 나무계단이 랠루 서점의 특징인 듯하다. 해리포터를 생각나게 하는 계단이 인상적이었다.

포르투를 다니다 보면 파스텔 톤의 오랜 시간을 보낸 집들이 골목마다 있다. 천천히 걸으면서 즐기는 골목 구경은 포르투의 매력인 것 같다. 골목을





지나다 보면 도루강변이 나온다. 도루강변은 역사문화지구와 빌라노바드 가
이아지구가 마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수십 개의 노천카페와 맛집들이 양쪽
강변에 모여 있다. 노천카페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강
가에서 버스킹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
닌가 싶다.

Day 3 in Porto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동루이 1세 다리는 포르투의 상징인 것 같다. 첫날
혼자 동루이 1세 다리를 다녀와서, 딸과 함께 다시 찾았다. 도루강을 건너 와
이너리가 모여 있는 가이아지구로 가 유람선을 탔다. 파리 세느강 유람선도
참 좋았는데, 도루강 유람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생각보다 큰 강이었
다. 리스본 태주강도 그렇고 도우강도 바다처럼 보이는데 강이란다. 포르투
는 골목길에서도 갈매기들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비둘기처럼 말이다.

도루강 유람선을 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고 꿈꾼다면 이를 수
있구나!! 나의 첫 해외여행은 2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한 파리와 독일 여행
이었다. 그 이후 혼자 떠나는 여행의 시작도 마찬가지였다. 시작은 나의 생
각과 내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작년 여행을 마치면서, 다음 여행지로 포
루투갈을 생각했었다.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행복한 이 순간,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도루강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포르투의 풍경은 정말 그림 같다. 여행하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 더 더욱 좋은 풍광을 볼 수 있었다. 해가 지면서 바람
이 불고 추워지기 시작했다. 유람선을 타고 난 후, 강변 노천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버스킹 하는 뮤지션 덕분에 음악과 함께 더 즐거운 저녁 시간
을 보낼 수 있었다.



Day 4 in Porto

포르투에서는 무료 워킹투어 신청을 하면 가이드와 함께 도시를 둘러볼 수 있다. 무료 워킹투어는 리베르다드 광장에 있는 페드로 4세 기마상 앞에서 시작된다. 파란 머리로 염색한 우리 팀 가이드는 겉보기에도 엄청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무료라는 게 맘이 걸릴 정도였다. 보통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5시간이 다 되어서 끝났다. 덕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곳도 알려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료 워킹투어를 첫 날 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Day 5 in Porto

숙소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첫날 혼자 산책하다 본 갤러리와 카페를 다시 가기로 했다. 갤러리에 전시된 그림과 유물들을 봤다. 갤러리 전시를 볼 때 관계자가 함께 동행하는 데, 우리한테 중국인이냐고(유럽에 가면 중국인이 많아 자주 듣는 질문이다) 묻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깐 너무 반가워하신다. 알고 보니, 그분의 아드님이 신부님이신데 한국에 역곡지역 성당에 계신다며, 한참동안 아들 얘기를 하셨다.

전시를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와이너리 투어를 갔다. 미리 신청해 놔던, 기대되는 와이너리 투어. 많은 와이너리 중에 가장 오래된 칼렘(CALEM)을 선택했다. 1859년에 세워진 와인 회사로 포트 와인 제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투어는 시음 2잔이랑 시음 3잔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린 2잔 투어를 신청했다. 와이너리 첫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와인 향이 훅하고 들어왔다. ‘와 ~ 진하다.’

투어는 영어로 진행하면서 와인 제조 과정을 설명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고 설명이 많아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할 수 있었다. 가이드 설명이 끝나면, 미리 준비된 두 잔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다. 와인 한 모금을 마시는데 생각보다 훨

썬 세다. 포르투 와인은 브랜드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 와인보다 도수가 높다고 한다. 우리와 마주 보고 앉게 된 ,칠레에서 온 모녀와 같이 대화를 나누며 사진도 같이 찍고 색다른 와이너리 투어를 했다. 포르투에 가면 꼭 와이너리에 가보라고 추천한 지인의 말처럼, 한 번쯤은 가보면 좋을 듯하다.

Day 6 in Porto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런던 행 비행기를 타야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산책하며 여유롭게 포르투 여행을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어제 갔던 카페가 맘에 들어 그곳에서 모닝 카페모카를 한 잔 하고, 산책하며 지나는 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맥도날드에도 잠깐 들렀 다.

포르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수식어가 붙은 곳이 많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화려하고 우아하지는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음은 어쩔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 매력에 빠지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종탑이 있는 성당으로 수녀님들이 계셨던 17세기에 지어진 카르멜리타스 성당(Igreja dos Carmelitas Descal os)에서 미사를 드리고 오후엔 멋진 썬셋을 볼 수 있는 미라가이아(Miragaia)로 갔다. 도착하니, 많은 젊은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도 준비해 간 돛자리를 펴고 앉아 붉은 노을 과 함께 젊은이들이 즐기는 걸 보면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고 왔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도루 강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힐링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포르투의 매력 인 것 같다, 숙소로 돌아와 다음 여행지인 런던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포르투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뜻밖의 ‘폭포’ 이야기

정릉 폭포를 찾아서

글/사진 마르

우연히 정릉동 지도를 보다가 그 안에서 폭포를 발견했다. 내 눈에 들어온 건 청수 폭포라는 이름을 가진 폭포보다 이름도 없이 그저 폭포라고만 쓰인 폭포였다.

‘폭포’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모습을 상상할 것 같다. ‘폭포’라는 글자는 나를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고, 글자 크기와 거리로 봐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아 “한번 가볼까?”란 생각이 들어서 폭포를 찾아가기로 했다.

내가 폭포를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같이 폭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다가오는 일요일에 함께 하기로 했다. 전일 책 모꼬지 행사와 뒤풀이로 힘든 몸과 마음, 그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로 인해 마음속에선 계속 “다음에 갈까”하고 속삭였지만, 폭포에 대한 열망이 그보다 조금 커서인지 출발 장소인 “호박이닝쿨책” 쪽으로 몸이 움직이고 있었다.

폭포를 찾고 내려오는 길에 막걸리와 파전, 그리고 두부김치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약속 장소에 모인 폭포 탐험대의 수는 4명이었고, 흔한 생수 한 병 준비하지 않은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폭포를 가슴에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출발했다. 생수도 없이 지친 몸들이 버스노선인들 챙겼을까? 버스 정류장의 버스 노선도를 대충 모두 훑어보면서도 어떤 버스를 탈지 서로의 의견이 분분했다. 종점이 산림초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때 마을버스가 도착했고, 일행 중 한 명이 기사 아저씨에게 “북한산 입구까지 가요”라고 물으니, 버스기사 아저씨는 “입구까지는 안 가요”라고 말해서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기다리 던, 아니 다음 버스를 타고 종착지에 도달할 때쯤 우리 바로 앞에 우리가 북한산 입구까지 가냐고 물어보았던 버스가 보였고, 그 버스도 이 버스도 종점이 같았던 것이다. 북한산 입구까지 딱 맞춰가는 버스는 없었고, 종점에서 몇 분쯤 걸어 올라가는 곳에 입구가 있었기에 어떤 버스를 타고 고만고만한 장소에서 내리게 되어 있었다. ‘뭐니? 그 버스 기사 아저씨’

어쨌든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오르다 보니 안내센터가 있어, 폭포도 물어보고 지도도 얻을 겸 그곳에 들어갔다. 안내 직원에게 폭포를 보러 간다고 하니 청수폭포를 정릉폭포라고 하면서 매우 좋아하면서도 계곡에 물이 없어 멋진 폭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위로 조금 올라가니 탐방센터와 조금 큰 식당 사이로 북한산 입구가 보였



고, 식당에서 생수와 얼음 생수를 구입함으로써 간단한 등반 준비를 마치고 북한산 입구로 천천히 향하였다. 길도 평탄했고, 천천히 걷는다는 느낌으로 시작된 등반은 청바지와 운동화뿐인 우리에게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됐다. 청수2교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도상으로는 청수2교 근처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인 청수폭포가 있어야 하는데, 청수2교에서 보이는 건 인공으로 만들어진, 폭포 같은 모습이긴 한데 물이 흐르지 않아 폭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폭포밖에 없었다. 설마 이곳은 아니겠지 하면서 청수2교를 지나 조금 올라가 보기로 했고, 도중에 만난 등반객에게 물어보니 조금 더 올라가면 폭포가 나온다고 해서, 좀 전에 지나온 곳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계속 등반을 했다.

조금만 올라가면 나온다면 폭포는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난 약수터는 물과 휴식, 그리고 폭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오아시스였다. 잠깐의 휴식과 약수의 맛도 좋았지만 북한산을 잘 아는 듯

한 등산객에게서 위쪽으로는 폭포가 없고 청수2교에서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아직 힘이 남아있음을 다행이라 여기며 천천히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내려와서 혹시나 하고 다시 봐도 청수2교에서 바라보는 곳은 폭포 같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에?

아무튼 청수2교를 기점으로 아까와는 다른 길로 올라가다 그냥 지나칠 뻔한 곳에 그래도 폭포라고 불릴만한 모양새를 갖춘 폭포를 발견했다. 그냥 지나칠 뻔할 정도로 작았지만 우린 서로 “이거네”, “이거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라 소리치며 폭포를 바라보았다. 이걸 청수폭포 또는 정릉폭포라고 하는 것 같았다.



어디에도 폭포라는 표시가 없었고, 물도 적게 흐르고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일부러 찾지 않으면 찾기 어려워 보였으나, 계곡을 계속 살피며 길을 오르고 있던 우리에겐 그 모습을 들키지 않을 수 없었다. 계곡 반대편에 있어 이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쉽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근처까지 접근하지 못해서 아쉽고, 물이 너무 적게 흘러 생각했던 폭포와 너무 다른 이미지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폭포를 찾았다는 기쁨이 훨씬 컸다. 청수 폭포를 찾은 기쁨을 뒤로하고 처음부터 찾고자 했던 넙적바위 위에 있다는 그 폭포를 찾기 위해 탐험을 계속하기로 한 우리들은 계속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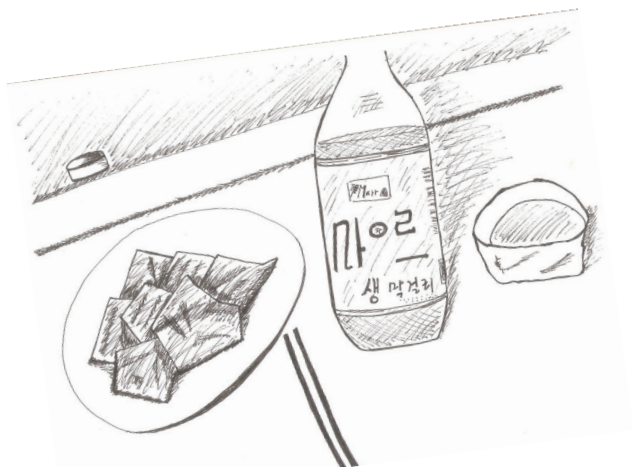
30분 정도 걸었을까? 계속된 오르막과 당일 새벽까지 이어진 음주는 우리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2차 목적지인 넙적바위까지 400미터 남은 지점에서 만난 쉼터에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의자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의 얼굴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래도 난 폭포를 찾기로 한 주동자로서 그만 내려가잔 말은 못하고 혼자라도 올라가 보겠다고 한 후, 넙적 바위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20분 정도 올라갔으나 넙적바위도 보이지 않았고, (물이 말라서인지) 폭포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마음을 달래주는 건 약수터뿐이었다.

시원하게 물 한 모금 들이키며 생각해보니,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동료들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아래로 내려가던 중 뒤늦게 나를 따라 올라오던 멤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폭포를 찾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2차 목적지인 넙적바위를 봤냐고 물어보니 멤버 중 한 명이 누군가에게 물어봤는데 ‘넓은 건 다 넙적바위지’라고 했으며 웃었다. 우

린 넙적바위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넙적바위로 추정되는 넓은 바위를 찾긴 했지만, 어떤 표지판이나 안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바위가 넙적바위인지 확인하진 못했다.

폭포를 찾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내려오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지만 막걸리와 파전 그리고 두부김치를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면서 계속 내려왔다. 탐방센터 건너편 조금 큰 식당에 들어가 막걸리와 맥주로 먼저 입가심을 한 후 감자전과 도토리묵을 먹고, 거기다 닭볶음탕도 같이 먹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막걸리를 나누며,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기억 속 폭포”를 이야기하며 폭포를 찾는 여정을 마무리 했지만, 정릉계곡 어딘가에 있을 폭포를 생각하면서 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글/사진 이연수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행복주택 청약에 넣었으니 당첨이 되면 결혼을 하겠노라고.

24살, 작은 아들 녀석이 마치 적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것처럼 재빠르게 짹은 선언을 나에게 던졌다.

지난 겨울의 추위에 너무 지쳐버려서 이제 비로소 봄이 왔을까 말까 하던 4월이었다. 봄을 맞이하긴 했으나 겨울은 아직 완강히 버티는 중이었다. 어설픈 봄은 미세먼지 때문에 어수선했고, 나는 암을 유발한다는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것보다 아들이 해야겠다는 그 결혼이 더 두려웠다. 머릿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걱정으로 입이 말랐다. 그렇게 며칠을 온갖 부정적인 상상에 시달리며 마음이 심란하던 중.

유레카! 나는 희망을 찾았다. 행복주택 청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않은가!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TOP 20안에 들어가는 이 나라의 현실에서 말이다. (이건 나의 짐작이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한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럴 리가 없지. 청약을 넣자마자 한 번에 될 리가 없지.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고 나서 순식간에 평정심을 찾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들들에게 선물을 받아 드는 기쁨을 누렸다. 바야

호로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5월의 수혜자가 아니고, 나는 조금씩 5월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중이었으므로.

다가오는 여름의 뜨거움이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우리를 압박하던 6월 어느 날. 예상대로 청약 당첨은 무산되었다. 그럼 그렇지. 좀 더 즐겁고 자유로운 연애의 시간을 많이 갖고, 세련되지 않았으나 에너지 넘치는 너의 청춘을 즐기려무나….

무조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가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니까 만약 몇 달쯤 뒤에 아버지가 된다면지 뭐 그런 식의 강력한 핵폭탄은 아니었다는 거다. 그거 또한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폭염은 연일 40도를 오르내리며 한반도를 녹여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체력을 갱년기 극복에 대부분 탕진하였으므로 어마 무시한 더위 앞에서 기진맥진하여 거의 방바닥에 붙어 지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루에 소모되는 전력량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서 말이다. 그건 또 하나의 공포였다. 들여놓은 지 20년 가까이 되어버린 에어컨이 냉기를 뿜어내기 위해 흡혈귀처럼 전기를 빨아들이는 상상이 나를 괴롭혔다.

아파트 청약에 추가합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니….

무슨 대학입시도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였다. 내가 예상을 했거나 말거나 미계약 세대가 발생하여 우리 아들 뒤편으로 돌아왔단다. 일주일 안에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제야 궁금해진다. 그걸 계약하게 되면 입주는 언제라고? 올 12월 입주란다. 그러니까 겨우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다. 이걸 너무 갑작스럽다.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나도 뭔가 심적, 물적으로 준비가 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난 정말 아무런 준

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심지어 나는 아직도 ‘며느라기’라는 만화를 읽고 공감하고, ‘B급 며느리’라는 영화를 보며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나는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다!

하지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주거문제를 해결해 온 이 두 녀석을 말할 명분이 없다. 나보고 집을 해내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말린단 말인가. 게다가 나하고 남편은 누군가에게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과 하겠다는 걸 뜯어말리는 일에 쟁쟁하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묻는다. “저쪽 어른들은 뭐라시는데?”

마침 저쪽 아버님이 매우 가부장적인 분이라는 얘기도 들었으므로, 제발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던가 뭐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라도 강력한 반대를 해주시기 바랐다. 그럼 나는 악역은 면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제발 이 철부지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포기하게 해주시기를! 나답지 않게 의사 표명을 미루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저쪽 어른들도 우리들이 뭐라는 지를 물어보신다는군. 이런!

혼돈의 시간이 이틀쯤 지나갔을 때, 아들이 뭔가 인쇄된 A4용지를 들고 온다. 들여다보니 둘이 결혼해서 살림을 꾸려나갈 계획표를 작성한 거다. 이렇게 둘이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겠지.

엑셀 서식으로 정리된 예산 명세는 빼먹은 항목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꼼꼼했다. 심지어 아들의 이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급여감소도 고려하고 있었다. 읽어보고 있자니, 둘이 어느 카페에 앉아 이걸 작성하느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엄마가 내주던 보험료도 가져가고, 둘이 결혼하면서 장만할 살림살이는 카드로 사고 10개월 할부로 갚는

단다. 결혼하면서 받을 축하금이나 선물은 하나도 예상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쓸 수 있는 한 달 용돈은 줄이고 또 줄여서 감히 외식 한번 편히 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있었다. 이걸 작성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도 너희 둘이 꾸려갈 둘만의 삶을 상상하면서 많이 행복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혹시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적은 금액이라도 예비비를 모아두면 좋겠다는 정도의 조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아기 같은 면이 없지 않은데, 아들의 그녀가 꼼꼼하고 계획적인가 보다. 저런 예산서를 작성한 걸 보니...

결국 양쪽 부모들은 결혼시키기로 했다. 나는 원래 결정이 빠른 편이다. 안 될 것 같은 일에 기운 빼는 걸 싫어한다. 우리 작은 아들은 매우 고집이 세다. 특별히 객관적이고 이해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말려지지 않는 아이다. 왜 모르겠는가? 내가 열 달을 내 속에 품고, 무려 스물네 해를 키웠는데. 가부장적인 가장이라는 그 집 아버님도 순순히 허락하신 거로 미루어 아들의 그녀도 고집이 만만치 않은가 보다.

맨 먼저 아파트 입주일을 잡아놓고 혼인날을 잡아야 하는 이상한 순서로 일이 진행되었다.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고르러 다니는 날 같이 다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친구들이 한 마디씩 한다. 그건 그냥 예의상 한 말일 게다. 너랑 같이 가고 싶을 리가 있겠느냐고. 나는 같이 가고 싶기도 했다가, 가지 말아야지 싶기도 했다가 마음이 하루에도 열댓 번씩 앞치락뒤치락했다. 혹시 같이 안 간다고 하면 아들의 그녀가 서운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경험상 이럴 때는 그냥 직설적으로 묻는 게 가장 좋다.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의 동행이 진심으로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냐고. 아들은 엄마가 힘들지 않으면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아들의 그녀의 생각도 그렇다고. 둘 이서만 다니면 뭔가 놓치는 게 생길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다. 난 수긍했다.

그래서 셋이 예식장을 돌아보고, 한복을 고르고, 어찌하다 반지까지 고르게 되었다. 수수한 링 반지로 예물을 대신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부자여서 집도, 예물도, 결혼식장도 다 최고로 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염없이 밀려들었다. 그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평소 나의 소신은 어디론가 멀리 던져버리고 아니 그런 소신은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돌만의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므로 나는 그저 같이 살피주는 역할만 해주었다. 아들의 그녀는 어머니, 어머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엄마 하며 내 팔짱을 파고들었다. 젊은 날의 나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이다. 나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어렵기만 한 존재였다. 시커먼 아들 형제만 키운 나로서는 참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행동이었다. 참으로 예뻐다. 우리 며늘아가기.

그렇게 긴 외출을 함께 한 이후로 엄마하고 부르는 며늘아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다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가, 잠깐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다가... 그런 종류의 마음이 살살 피어난다.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다.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처럼 달려 나가는 내 마음을 붙잡아야 했다. 우리는 이제 막 만난 거니까. 사랑하는 남자의 엄마니까 날 무조건 좋아해야 한다고 우기지 말아야 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나 스스로 타일러 온 일이다. 그런데



우기고 싶었다. 나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항상 웃으면서 대하는 바야흐로 ‘며느라기’ 에(며느리를 부르는 ‘며늘아기’ 를 빗댄 말로, 시댁 식구에게 귀염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시기라는 의미로 한 웹툰에서 사용되었다.) 들어선 그 아이를 마구마구 예뻐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나의 이성이 나를 진정시킨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친해지기로 하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게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주 친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해 주는 관계로 지내야 하겠지. 내 아들도 나와 아주 딱 맞는 존재는 아니니까 말이다.

하루하루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 어린 시절 잘 웃고 다정했던 우리 막내아들이 한집안의 가장이 될 날이 자꾸만 다가온다. 성큼성큼. 거인의 걸음으로.

우리 모두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나는 시어머니가 처음이고, 아들은 남편과 사위가 되어 본 적이 없고, 며늘

아기는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을 생전 처음 해보는 거다. 우리 집의 저 말 없는 남자도 시아버지 노릇을 하는 자신을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앞둔 나는 떨리고 두렵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볼품없게 서둘 수도 있지 않은가? 실수를 연발하며 속상할 수도 있을 텐데. 연극처럼 리허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서로 응원해주고, 설명해주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위로해주면서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을 잘 겪어나가고 싶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새로 시작하는 우리 아들과 며늘아기의 결혼생활이 달콤하고 즐겁기를.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부부가 되기를.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와 기대고 의논할 수 있기를.
나에게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나의 이성이 계속 이렇게 건재하기를.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고 다짐한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늘아기야!
너희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진부하지만 사. 랑. 한. 다!
용감한 너희들의 사랑이 부럽구나!

- 후일담 -

날도 잡고 했으니 양가 인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을 정했다. 사돈 댁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도 세상에서 제일 긴장되고 어색한 밥을 먹었다. 우리는 서로 자식을 잘 봐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다. 휴~~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제일 어려운 고개를 넘어갔다.

추석 연휴를 백령도 근처의 큰아버지 댁으로 지내러 간 며늘아기가 시원

한 바다 사진을 보내주었다. 바다를 보고 엄마를 떠올려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 아들들한테는 받아보지 못한 편지다. 딸을 키우면 늘 이렇게 해주는 걸까?

나는 손에 꼭 맞는 살림살이를 찾아 쓰는 걸 좋아한다. 요즘에는 맘에 드는 살림살이를 볼 때마다 며늘아기가 생각난다. 내가 이걸 선물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 부담스럽고 성가시다고 생각할까? 자기 살림을 내가 너무 간섭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 망설임이 오백만 번이다.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건 몇 가지 준비해 놓기도 했다.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할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탐스런 청포도를 풀어놓는다. 며늘아기가 사서 들려 보냈단다. 한 알 따서 먹어보니 달콤하고 맛있다. 맛있는 포도, 고맙게 잘 먹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며늘아기의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 며늘아기처럼 울 아들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며늘아기가 보내 주는 이모티콘 중에 귀여운 동물이 엉덩이를 흔들며 하트를 뿌리는 게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 며느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장면이 상상되면서 웃음이 난다. 저런 행동을 나에게 해 줄 만큼 스스로없이 친해지면 참 좋겠다.



며늘아기가 보내준 이모티콘

헬조선에서 외치는 Not today

글 채다원(혜화여고)

방탄 소년단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는 외신들의 귀를 기울이게 했으며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방탄 소년단의 팬이 아니어서 관심도 없었고, 영어 시간에 영어 연설을 해석하고 문법을 설명하는 중에 감동은 좀 더 떨어졌으니 흥미 유발을 위한 영어 선생님의 선택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어제 실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다. 오늘 또 실수를 하더라도, 내일 조금 더 현명해지더라도 그것 또한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을 “나는 어제 영어 단어를 몇 개 못 외웠다. 오늘 단어를 다 못 외우고, 내일 조금 더 외우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나 자신이다.”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수업 후에도 다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뿐이었다.

어쩌면, 독후감을 읽기 위해 책을 읽기 때문에 책 읽기가 그리 행복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수행을 위해 펼쳐 든 <만세전> 또한 그랬다. 책장을 덮는 순간까지 기계적으로 책장을 넘겼다. 다 그런 거지 뭐. 일본 유학과 도련님인 ‘나(이인화)’는 결국 ‘묘지’와 같은 조선을 도망쳤다. 헬조선이라는 단어 때문일까? 무덤 같은 조선을 도망치는 인화의 모습이 지금의 청년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아니 그건 어쩌면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겁먹은 내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불현 듯 영어수업시간에 들었던 문장이 떠올랐다. 실수투성이인 자신을 끌어안고 어제

를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간다는 목소리가 인화를 꾸짖는 듯 했고, 내게 묻는 듯 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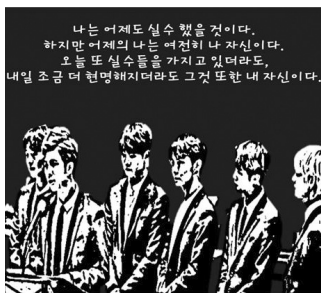
이야기의 시작은 동경 유학중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급한 연락을 받았음에도 옷을 사고 이발도 하고 출국 전 애인을 찾아가면서 여유로운 행보를 보였던 그는 동경유학이 가능한 집안의 철없는 도련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의 심문에 시달리면서, 일제에 의한 경제적 침탈, 조선인의 몰락과 이주를 목격하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가서 ‘요보’(조선인 노동자들)를 모집해서 인신매매로 돈 벌 궁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방관자로 살아온 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충격에 휩싸인다. 일제에 의해 억압을 받는 조선인을 보며 분노를 느꼈고,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아쉬운 점은 거기서 그쳤다는 것이다. 아픈 아내에게 연민을 느끼고 미음을 먹이는 것만으로 남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혹자는 소설 속 생명이 다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조선에 비유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식인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뇌라고도 하지만, 의학으로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병을 방치했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가는 모습은 지식인의 비겁함이다. 그가 생각하는 조선은 '뒤흔들려야 할', '움도 싹도 없이 없어져 망할 대로 망해야 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공동묘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묘지를 떠나 진실된 삶을 찾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탈출하듯 찾은 공간이 동경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가 피한 무덤 속을 방탄 소년단은 걸어 들어간다. 지옥 같은 공간에서
은 실수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노
래한다. 아직은 아니라고

No not today /언젠가 꽃은 지겠지/But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죽기엔 /too good day

실수투성이인 자신을 끌어안고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
아간다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남은 것은 그래서인가 보다. 누구나 자신이 사
는 시대가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아직도 벗어날 수 없는 조선의 굴레에 지
옥까지 더해진 이 현실에서 비록 실수하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
는 그들을 본다.



나는 엑소의 팬이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
자면 방탄 소년단은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그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
디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not
today”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포기는 아
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하지 말
자.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사
랑하며 한 발만 더 나아가야겠다.

글/사진 차정미

아리랑 고개





호박이닝쿨책을 향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는
북한산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환하게 뜬 달을 보면서
아리랑 고개를 걸어갔다.



어느 겨울 아침에는
시멘트 바닥 위에
단감씨 하나가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잠들어 있었다.





흥 천 사

사진 채종현

채종현 작가는 해마다 다른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흥천사를 한 달 동안 오가며 사진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그 일부를 정릉야책에서 공개한다. 성북에서 열리는 작가의 전시를 기대해 보며.

- 편집부













- 바질페스토 카레 편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아주세요

글 김미선

여태껏 요리만 하면서 먹고 살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 32, 아직도 한창인데 요리하면서 먹고사는 게 싫어졌다. 벌써. '아, 뭐하고 살지?' 라고 생각하게 될 줄이야. 마치 은퇴한 노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생각보다 꿈도 일찍 이루어질 줄 몰랐다. 어렸을 적 장래희망 칸은 언제나 '내 가게 차리기' 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행복했는데, 달려왔는데 벌써 지치다니. 역마살이 있던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걸까? 그래도 만두 씨(남편)와 결혼해서 다행이다.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나에게도 생기다니 말이다. 헛으로 살진 않았나 보다.

직장생활도 자영업 생활도 나는 참 마라톤을 못한다. 건강관리까지 못하는 주인을 만나서 몸이 고생이다. 쉬는 요즘, 전업주부가 다 되어간다. 혼자 살았을 때는 나 혼자 먹자고 잘 차려먹지 않았다. 고생한 몸에게 후한 보상은 못해 주말정 귀찮다고, '예뻐 필요가 있나, 맛있을 필요가 있나' 라면이 최고지' 하며 먹여 놓았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풀지도 않은 채 제 시간에도 밥을 못 먹는데 라면이라니. 안 아플 수가 있나. 한심하다.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손님을 위해, 나 따위는 짝어치우고, 완벽하기 위해 욕먹지 않

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위해 정성을 쏟을 체력이 없었다. 그저 쉬고 싶었을 뿐.

쉬다 보니, 만두 씨의 마누라로서 남편 밥은 챙기고 싶어 졌다. 남편이 맛있는 것을 먹을 밥이니 말이다. 남편은 내 직업과 달리, 밤에 주로 작업한다. 낮에 해도 되지만 밤에 집중이 더 잘 된단다. 예술가들은 다 비슷한가 보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올 남편을 기다리다가 나도 늦게 자게 된다. 자기 전, 살짝 졸린 기운이지만, 가끔씩 야밤에 요리가 하고 싶어진다. 다음날, 남편이 맛있게 먹어줄 생각에 신나서 말이다.

만두 씨는 카레를 좋아한다. 무지막지하게. 매일 삼시세끼 카레만 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다. 진정한 카레 마니아다. 나도 좋아하지만 만두 씨를 위해 자주 카레를 만든다. 요즘에는 카레를 만들 때, 바질 페스토를 넣는 것이 나의 비장의 무기. 이 바질 페스토를 말하자면! 이야기하기 전부터 신이난다. 왜냐하면, 동두천 부모님 댁에서 엄마가 직접 키운 바질이기 때문이다.

엄마의 텃밭은 항상 바쁘다. 잡초 제거하랴, 물 주랴, 거름 주랴, 새 식구 심느라, 자리 옮겨 주느라 등등. 그중에서도 내 눈에 들어온 바질들!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해를 듬뿍 받고, 부지런한 텃밭 주인을 잘 만났으니, 건강하게도 자랐다. 땅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동네에서 무성하게 푸르게 자랐



으니 싱그럽기 그지없다. 반짝반짝 예쁜데 심지어 맛있어 보이니까지 하다. 먹을 수 있는 재료만 보면, 어린아이처럼 설렌다.

'나, 싱싱하죠? 맛있게 요리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같다. 나 또한 어루만지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답을 대신한다. '으악! 너로 맛난 페스토를 만들고 싶다!', '만들자'. 신나는 나머지 다급하게 주방에 있는 엄마에게 물어본다. '엄마, 집에 잣어랑 올리브 오일 있어?' '혹시, 레몬즙도 있나?' '소금, 후추는 당연히 있을 거고'. 재료가 없을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서 부푼 나의 기대가 폭 꺼지면 어찌나 하고 불안하면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원하는 재료는 모두 있었고, 심지어 그 비싼 가평 잣과 스페인에서 온 올리브 오일도 있었다. 제값 주고 사기 어려운 고급 재료들을 마음껏 쓰라는 엄마의 말씀에 더 신이 났다.

먼저 프라이팬에 포르포르 잣을 굴려가며 약한 불에 볶아가며 껍질도 벗기고 고소함을 증가시킨다. 바질은 텃밭에서 싱싱하고 큰 것들로 따온다. 그리고 잘 씻어서 물기를 빼준다. 이때 너무 건드리면 쉽게 상처가 생기면서 시커멓게 갈변되니 살살 다룬다. 감칠맛을 더해줄 마늘 또한 준비하고, 갈변도 막고, 느끼함을 잡아줄 레몬즙도 준비한다. 간을 담당할 소금과 후추는 '당연히 함께' 이다. 파마산 치즈도 넣어야 하지만, 엄마의 냉장고에는 없었기에 생략했다.(아쉽지만, 생략해도 괜찮다.)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와 같은 지역(이 지역의 올리브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약 77%이다)에서 생산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한국에서는 비싸지만, 제대로 된 올리브 맛을 느낄 수 있어 선호한다. 직접 사는 것보다는 선물로 받았다면 통 크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준비가 되면

간단하다. 집에 있는 믹서기에 넣고 갈면 완성이다. 단, 한 번에 말고, 끊어가면서 짧게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믹서기에 열이 나면서 색도 맛도 잃게 되니 말이다. 절구에 찼어 만들면 더 좋지만, 편리한 것을 택한다는 현실. 이렇게 만든 페스토는 갓 만들어진 두부에도 얹어먹고(퓨전),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와 파스타면에 버무려 먹는 등 다채롭게 즐기기 쉬워 만능이다.

나는 특별하게 만두 찌가 좋아하는 카레에 넣어보기 시작했다. 이것도 엄연히 소스이니 어울릴 거라는 확신에서 시작한 행동이다. 야채와 고기(주로 스펀)를 볶다가 물과 고체 카레를 넣고 걸쭉해지면, 마지막에 화룡점정으로 바질페스토를 한 두 숟갈 완성된 카레에 흔들흔들 풀어준다. 초록색 페스토가 카레에 흩어지고, 그 청초했던 푸른색을 점차 잃어가면서 카레 속으로 사라진다. 먹는 사람들은 바질페스토가 들어간 줄도 모를 만큼 티가 나지 않는다. 이제 페스토와 카레는 완벽하게 한 몸이 되었다. 페스토가 카레에 풀



어지기 전과 후의 모습과 맛은 기가 막히다. 먹어보면 더 알 수 있다. 본연의 색은 잃었지만, 맛의 깊이는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일랄까.

카레가 완성되는 사이에 밥이 다 지어졌다. 처음으로 고민 고민하다가 비싼 돈 주고 유기농 햅쌀을 사놓았다. 쌀값이 올라 할인된 유기농 햅쌀을 사는 것이 더 이득이기도 하거니와

당연히 더 맛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카레를 위해 사둔 유기농 햅쌀이 아니었지만, 운명이었나 보다. 갓 지어진 밥을 보자니, 먹기도 전부터 이젠 역대 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이고, 천생연분을 만났다. 카레와 올해의

헛쌀, 함께 곁들이니, 함께 먹으니, 예상대로 환상적이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다.

맛없으면 돈 안 받는다던 우리 아빠의 농담이 생각난다. 어릴 적, 요리를 좋아하시던 아빠가 음식을 하시면, 항상 하시던 레퍼토리였다. 간을 보시고는 아빠는 너무 괴롭다며 장난치셨다. 아빠가 한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왜 그런 농담을 하셨는지 100퍼센트 공감한다.

‘맛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은 긴 여운과 감동을 준다. 요리로 평생 먹고 살고 싶었던 나는, 요리로 계속 먹고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도 고민해본다. 요리는 인생에서 필수이지만 말이다.



* 페스토란?

바질을 빵아 올리브오일, 치즈, 잣 등과 함께 갈아 만든 녹색의 이탈리아 전통 소스이다.

내가 운동 오지라퍼가 된 이유

글 임민창

어린 시절의 나는 꽤나 운동신경이 없었다. 축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늘 크고 작은 상처가 몸에 남았다. 운동신경이 없어서 다치는 거라고 어머니는 말 씀하셨지만 밖에서 노는 게 마냥 재미있던 학생시절이었기에 그 말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대로 운동을 배운 적이 없지만 그저 뛰고 달리고, 부딪히며 마냥 즐거웠기 때문에 지치거나 날이 어두워져서야 집에 돌아가곤 했다. 내 생에서 가장 걱정 없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지만 빨리 지나가 버렸다.

수험생 시절을 거쳐 좌충우돌한 20대에는 운동에 투자해 본적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듯, 젊음이 넘치는 몸이고 보니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운동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딘지도 모를 위치에 있었고, 그저 치열하게 사느라 바빴다. 내 능력이, 혹은 내 노력이 모자랐는지, 20대의 끝에서 나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시작한 직장생활은 야근이 필수였고, 인정받고 싶어 주말도 헌납하며 일을 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었다.

자취방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일상_이 1년을 넘겨 6개월이 더 지났을 무렵 몸에 이상이 생겼다. 돌보지 않았던 몸에 탈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번 아프기 시작한 몸은 좀처럼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다.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고, 소화불량으로 늘 위가 아팠다. 앉아있는 동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만성피로에 시달렸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회사 생활에도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다. 약해진 몸은 회사 생활뿐 아니라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지인과의 약속이나 만남을 피하게 됐고, 개인적인 일들을 최대한 미뤄두고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다. 나 자신을 위한 자기 계발이나 공부 같은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항상 무기력했고, 피로감을 핑계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늘어갔다.

그랬던 삶이 변하게 된 계기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앉아있기도 힘든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내 몸 상태를 보고 화를 냈다. 아직 젊은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폐미니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기를...)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부끄러웠다. 몸이 아프다고 귀찮은 일들을 내버려둔 나에게 정말 아프게 쏘는 말이었다. 의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손만 대도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정말 놀랐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몸이 되어 있다니. 내 몸 상태를 깨닫고, 심각한 얼굴로 다시 의사를 쳐다봤을 때, 그 의사는 그제야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했다. “아직 30대니까 운동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 운동에 투자해야 앞으로 40, 50이 되어서도 문제없이 건강할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막막했다. 비싼 돈을 들여 트레이너에게 배울 수도 있었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에 불과한 내게 그만한 비용은 부담스러웠다.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3개월의 등록 기간이 끝났다. 운동하는 법을 스스로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운동을 가르쳐준다는 세미나 혹은 모임을 찾아다녔다. 하나 둘씩 운동에 관한 상식이 늘어가고, 그것들을 내 몸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

점차 효과를 보기 시작하자 그 변화는 놀라웠다.

가장 먼저 지독했던 통증이 사라졌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서 생긴 통증들이 없어지자, 회사 생활에서도 얼굴이 밝아졌고, 일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났다. 회사에서의 평가와 상관없이, 회사와 내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일상생활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몸에 에너지가 생기니 내 주변을 더 잘 돌아보게 되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나였기에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몰려오는 피로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나였지만, 운동 이후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도 시간을 투자할 에너지가 생겼다. 운동으로 에너지가 생기니 시간이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는 주변에 운동을 권하기 시작했다. 비록 전문가도 아니고 운동을 경험한 시간도 지극히 짧지만, 운동이 가져다 준 극적인 변화가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 내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이제는 내 주변인들이 모두 안다.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운동을 말할 정도로 오지라퍼임을 인증하고 있다.

내가 입만 열면 운동을 말하고 소위 운동 오지라퍼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내 주변인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다. 그리고 나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해서다. 운동은 직접 몸을 움직여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같은 운동을 해도 사람마다 찾아오는 변화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겪으면서 느낀 것은 운동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몸이 아픈 것일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느

끼는 많은 어려움들을 포함한다. 그건 내가 직접 체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큰 원인과 병명이 없는 아픔이라면, 운동을 해보기를 권한다. 운동을 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유 없는 아픔도 충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삶이 무료하거나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역시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정리되고, 땀을 흘리면 머리가 맑아진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인생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건강한 몸은 얻을 수 있으니 손해 볼 것은 없다.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기를 수 있다.

운동으로 인해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 반신반의할 수도 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괜찮다. 그러나 아무리 부인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운동을 통해 자기 몸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몸이 바뀌는 경험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매우 신기한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그 경험을 시작으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는 것은 운동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에게도 나는 오지랖을 부려본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오지랖 들어가기

얼마나 걸어야 우리 몸에 반응이 올까요? ‘흔히 말하는 1만 보 걷기’가 근거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8000보 정도를 걸어야 ‘걷기’를 통해 몸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평균 보폭을 50cm

로 잡고 8,000보를 계산하면 4km가 됩니다. 평범한 걷기 속도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이보다 적게 걷는다면 운동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시간의 걷기라니, 꾸준히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걷기로 운동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위의 답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에너지가 없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운동을 챙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걷기라면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걷기는 들이는 시간에 비해 효과가 매우 적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근육들이죠. 그런데 걷기로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걷기만으로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시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지랴 들어갑시다!

딱히 아픈 데가 없고, 시간이 없으며, 운동하는데 돈을 들이기 싫다는 분들은 걷지 말고 뛰십시오. 그것도 전력질주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50m나 100m를 정해놓고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뛰면 됩니다. 그렇게 5번만 뛰어보면 압니다. 내 몸의 어디가 아파오는지, 체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몸이 무거워졌는지 등.

1시간이나 걸을 것도 없이, 대략 5분이면 전신의 모든 에너지와 근육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셔도 충분히 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완전 고효율의 운동이죠. 그러나 그만큼 피로가 심하기 때문에 잘 쉬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서 무리하다간 도리어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전력 질주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나, 휴식일 전날에 하고 쉴 만큼 힘든 운동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운동 후에 피로를 잘 풀어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운동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운동이든 한 가지 배우라고 권해드립니다.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데 기껏 헬스장에서 어색한 기구에 몸을 맡기거나 막연하게 전력질주를 하는 것 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운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배워야 실력도 늘고 몸에도 이롭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초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릉문학지도 그리기 1

- 박화성 이야기

글 김가희

3~4년 전부터 나는 성북에서 살았거나 활동한, 즉 성북과 인연이 있는 문인들 - 한용운, 조지훈, 김광섭, 백석, 박경리, 박완서, 신경림 등-을 소개하고 답사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정릉문인들을 주제로 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인 <정릉동, 문인들이 사랑한 서재>에 참여해서 어떤 작가들이 성북과 정릉에 살았으며 그들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아가 그들이 왜 여기에 정착했고 어떻게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들과 내가 시간을 뛰어 넘어 같은 공간을 공유했었다는 사실은 나의 인식에 새로운 확장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경림 시인의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라는 시를 읽고 난 후에 길음시장과 그 주변의 모습은 그 시를 알기 전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동방주택과 길음시장이라는 좁은 세상에서 살다간 어머니지만 지구 구석구석을 다 둘러본 자식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지혜를 실천하셨다는 깨달음으로 어머니를 애도한 이 시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감흥과 의미를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장소를 기반으로 새롭게 접근해가는 문학 이야기는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역



문학으로서의 정릉문학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정릉문학의 성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릉문인으로 분류되는 여성작가 박화성에 대해 가볍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솔직히 나는 박화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가우뚱 했다. 목포 출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화성을 잘 모를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문학 교과서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어려서부터 목포 출신 작가로서 박화성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쓴 목포 출신 어느 블로거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만큼 박화성은 목포 문인이라는 지역문학가로서 더 평가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 목포에 <소영 박화성 문학기념관>이 건립되고 이후 박화성백일장, 박화성문학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사업과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으니 목포 시민들에게 박화성은 친숙한 지역 작가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그리고 박화성의 대표작 「하수도공사」(1932)가 목포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작품은 목포문학으로 불릴 만하다. 「하수도공사」는 목포 항구의 하수도공사 현장을 실제로 취재해서 쓴 일종의 체험소설로 자본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계급투쟁과 그 과정에서 자각하는 개인을 다룬다.

목포 문인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화성을 정릉 문인으로

로 호명 못 할 이유는 없다. 박화성은 정릉에서 1958년부터 6년 정도 살고 하월곡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화성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장편소설 『눈보라의 운하』를 보면 1958년 경향신문에 연재 중인 『내일의 태양』을 영화사에 넘기며 한꺼번에 받은 돈으로 정릉에 스무 평짜리 집을 사서 이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화성은 “대학생 셋의 학비를 부담하고 병자를 낀 살림을 하면서 그래도 30만원 전셋집에서 이만큼 늘려온 자신의 힘이 신통하게도 생각되었다”(306)라고 당시 심정을 적고 있다. 1955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박화성의 다른 장편소설 『고개를 넘으면』 역시 영화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박화성 연재소설의 대중성은 꽤나 높았던 것 같다. 이런 사실만을 보면 박화성을 대중소설 작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박화성의 해방 전 작품들은 동반자 작가¹⁾ 계열 소설로 분류되며 계급투쟁이나 일제강점기 아래에 놓인 빈궁한 현실을 그려낸 작가로서 최고로 평가받는다.

박화성의 작품은 해방 전과 해방 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단절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그녀의 결혼과 재혼이라는 개인사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 동안 대부분의 박화성 연구가 해방 전 작품들 위주로 되어왔기 때문에 해방 전과 후의 작품들을 단절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지는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박화성 연구는 해방 전과 후를 단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면서 박화성이 일관성 있게 다양한 여성들의 여성 주체성을 획득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단절이나 통합이냐의 문제는 작품연구를 통해 더 살펴볼 문제지만 어쨌든 박화성은 1938년에 재혼한 이후 해방까지 각필하였고 해방 후 작품들에서는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계급해방에 기반한 적극적인 저항의식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녀의 재혼이 그녀의 의식과 작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사회주의자이며 반전 데이 빠라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한 김국진이었고 두 번째 남편은 자수성가한 자본가 천독근이었다. 김국진과의 이혼 후 자본가와와의 결혼으로 인해 박화성은 주변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의 자서전을 보면 재혼 후 그녀의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따른 자신의 사상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단순히 재혼 후 살림과 내조에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섬유 공장 사장이었던 천독근은 정치에 뜻이 있어 온갖 손님치레가 잦았고 집안 제사 및 시부모 병간호에 아이들 양육까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다. 게다가 그 시절은 일본의 한국어말살정책으로 작품 검열이 심했던 시기여서 박화성은 자연스럽게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첫 남편이었던 김국진은 출소 후에 용정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는데 이 때 천독근은 이미 박화성에게 구애를 하던 중이었다. 자서전소설인 『눈보라의 운하』에서 박화성은 김국진과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며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 열거한다. 머리가 좋아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상과 취미가 비슷한 것이며, 나아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눈보라의 운하』에서 박화성은 결혼 후 여름을 “완전한 사랑에 도취되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몰랐다”(157)라고 쓰고 있다. 박화성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김국진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가족 몰래 비밀 결혼을 올린다.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박화성이 어머니도 모르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김국진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다.

박화성은 김국진이 용정으로 올 것을 권유했지만 어머니와 목포를 결국 떠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천독근의 끈질긴 구애와 자살하겠다는 위협 등으로 인해 천독근과 결혼하기에 이른다. 헌신적이고 결사적인 구애에 끝내 박화성의 마음이 흔들렸으리라 추측해본다. 박화성은 천독근이 자신을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중에 천독근은 박화성이 쓰던 원고를 불태워버리기도 할 정도로 박화성이 글쓰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화성의 천독근에 대한 원망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남편 천독근에 대해 “결혼하자 가난한 월급쟁이를 큰 기업가(물론 사장이긴 하나)로 잘못 알고 부르주아의 아내라고 경원했었다.”(248)라고 말하거나 “아빠(천독근)는 신사참배란 해 본 일이 없고 가미다나는 골방 구석에 쳐 놓고 있었는데 친일파라니 귀신이 웃을 노릇이었다.”(249)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천독근을 부르주아, 친일파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남편을 두둔하고 있다. 자서전이라는 것이 작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을 변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박화성의 표현들은 그 말의 이면을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작품들, 특히 연재장편소설의 성격이 저항보다는 순응으로, 그리고 계몽의식 및 애국심 등으로 무리하게 연결되며 이전 작품들과 달라진 데 대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박화성의 두 남자가 속한 계급적, 사상적 차이에서 오는 박화성의 사회적 정체성의 차이에서도 그 한 단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화성의 자서전소설에는 박화성의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 경향성이 강한 소설을 썼던 작가로서 시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나 정세 분석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 이러한 사실은 박화성 스스로가 사상에 대한 논쟁을 피해가기를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한 사상의 차이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화성은 사랑보다 이상과 사상을 나누는 것에 더 행복을 느꼈던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천독근과의 결혼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는 것은 나의 이상한 흑백논리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녀에게는 이상과 사상을 동료들과 나누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18살의 박화성은 영광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 시인 조운을 만난다. 조운은 박화성에게 작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박화성의 소설 「추석 전후」를 춘원에게 들고 가 춘원 추천으로 <조선문단>에 발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시절 영광에서는 읍내 유지들에서부터 직원 학생에 이르기까지 글을 써서 조운에게 보내면 일주일에 두 번씩 글을 학교 문짝에 붙여 공개를 하고 장원으로 뽑힌 글은 서울로 보내 잡지에 실리게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화성의 글은 장원으로 뽑혀 잡지에 실렸고 박화성은 자신의 글이 활자화되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학교에서뿐 아니라 하숙에 돌아와서도 박화성과 동료들은 친형제처럼 모여서 애기와 여흥을 즐겼다. 박화성은 이 시절 성을 초월한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것을 귀한 시절로 회상한다.

그 시절 영광은 인문학이 꽃피는 동네였던 것 같다. 읍내 유지에서부터 학생들까지 매일 글쓰기를 하고 서로 모여 온 마을이 문학과 철학, 사상을 이야기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영광의 그런 문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이 든다. 천재소녀였던 박화성은 15살에 교편을 잡

았다. 그녀의 교육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녀는 학생들을 두셋씩 번갈아 가며 데리고 있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며칠씩 함께 지내면 아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직접 받아들여서 아주 단 아이가 된다고 말하는데서 그녀의 품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대목도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축첩으로 집안이 기울어 15세의 나이로 직접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시고 오빠의 유학 자금을 지원했던 그녀이지만 결국 자신의 유학은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김국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소설을 써서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홀로 키웠고, 해방 후 남편 천득근의 사업이 기울자 결국에는 박화성이 소설을 써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웠다. 소설을 써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모든 작가들의 숙제인데 박화성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 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소설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만하다.

박화성은 유학경비를 도와주던 오빠 친구와의 애정 없던 약혼을 파기하고 동경 유학에서 돌아온 시절에 소설 『백화』를 쓰기 시작한다. 『백화』는 1932년 <동아일보>에 연재되는데 남성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찾아가는 고려 말 기생 백화를 그린 장편소설로 여성작가 최초의 장편연재소설이었다. 『백화』를 쓰고 난 후 서울로 올라온 박화성은 문인들을 만나며 문단을 경험한다. 처음 서울에 와서 교류한 여성 작가들은 모운숙, 이선희, 최이순, 윤성상 등이라 말하는데 모운숙과는 오래도록 친분을 나눴다.

정릉의 지명이 눈에 띄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백화』를 출판하면서 열린 축하연이 ‘신흥사’에서 열렸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신흥사’는

아마 지금의 ‘흥천사’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이숙중 씨는 황금정 이 정목 금화료라는 초라한 건물에서 십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후일의 대성 신의 진통을 겪노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지금 돈암동 산의 일대를 점령 하여 낡아진 필름처럼 지나는 것이다”(185)라고 쓰고 있는데 지금의 성신여 대의 시작을 말하는 것 같다.

이왕 정릉 이야기를 했으니, 정릉과 인연이 있는 두 명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첫 번째 인물은 계용묵으로 “이 해에는 「청계도로」와 「비오는 저녁」 두 단편밖에 쓰지 못한 채로 바로 이웃인 계용묵 씨의 쓸쓸한 서거에 예수의 정회를 금치 못했다.”(326)라고 쓰고 있어서 정릉에 살았던 계용묵과도 친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릉에 살았던 평론가 조연현 씨가 박화성의 아들 천승준의 평론 「인간의 긍정」과 「현대의 작가형」을 추천한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정릉에 이사 와서 남편 천독근의 병세가 악화되어 약값에 병원비에 세 아이들 등록금 걱정으로 박화성은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 1960년에 장편소설을 세 개나 연재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6월에는 『타오르는 별』이 9월 말에는 『창공을 그리다』가 끝나고 11월부터 동아일보에 『태양은 날로 새롭다』를 집필하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태양은 날로 새롭다』에 대한 박화성 본인의 설명을 보면 해방 후 작품들의 성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태양은 새롭다』는 4.19에 희생된 의학도의 끼친 생명이 애인의 정성으로 외롭게 성장되고 또한 고인의 친우이자 여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이 부모와 주위의 완고한 인습을 깨뜨리고 사랑의 승리를 하여 새 생명의 인수자가 되는 얘기인데, 나는 그 작품에서 역사는 늘 새로운 것을 향하여 달음질치는 까닭에 어제의 태양은 벌써 오늘의

새 희망과 새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빛이라는 것을 저류로 깔고 진행했던 것이다.”(324) 사랑의 힘으로 과거 세대의 인습을 깬다는 설정이다. 대중성을 염두에 뒀야하는 신문연재소설을 써서 돈을 벌어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해방 후 장편소설들에서 보여주는 탈계급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작가의 사상이 변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라 박화성의 사상이 변하였다는 사실보다 어떤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 변하게 되었는지 따져보는 일이 더 핵심일 것이다. 분명히 말하기는 힘들어도 천득근과의 결혼 후에 그녀의 사회적 삶은 큰 변화를 맞이했을 것인데, 그녀는 그러한 변화에 갈등하거나 새로운 세계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자리에 충실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방 전 작품이 더 훌륭하고 해방 후 작품이 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상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화성은 좀 더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화성의 삶과 작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주제 넘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길 바라며 해방 후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졸고를 마지냈다.

* 각주

1) 1930년대 전후에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동조한 작가들의 총칭. 이들은 정식 카프(KAPF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의 회원은 아니었으나 사상적으로 카프의 작가들과 일치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6484>

정체성의 공간성

- 『여자다운 게 어땠어』(에머 오톨, 2015)를 중심으로

글 이은아

1. 『여자다운 게 어땠어』

왜 여성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대우가 불평 부당함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일까? 아니 오히려 그 역할에 충실한 연기를 하는 것일까? 10년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행한 다양한 경험들(12가지 실험)을 통해 에머 오톨은 그 답을 얻어낸다. 실험을 통해 에머 오톨은(‘그녀’라는 언어에 내포된 젠더적 언어 수행성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이 이름을 쓰기로 함) 젠더의 이분법은 지극히 임의적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디스 버틀러, 부르디외, 그리고 벨 훅스 등이 기술한 개념들을 적절히 차용한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를 개인이 사회와 교류하기 위해 저마다 가진 지속적인 체계로 정의하는데, 쉽게 ‘상식’으로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아비투스는 대부분 임의적인 것으로 현재의 모습과 같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상식적인 행동을 이어 나가는 이유는 아비투스 구조가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아비투스의 개념이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젠더의 정체성이 ‘수행적’이라는 의미인데, 오랜 시간에 걸친 양식화된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젠더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비투스라는 구조 아래에서 젠더는 조건화된 수행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결정된다.

구조와 행위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각자 자유롭게 행하는 선택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조건화된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강요된 선택이다.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보상을 받지만 젠더 규범에 순응하지 않으면 미숙하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에머 오톨이 제시하는 현실적 방법은 젠더의 상징성을 조작하고 깨는 것이다. 상징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뒤섞어 보는 것이다. 이런 작은 시도들만으로도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젠더 정체성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

2. 정체성의 공간성

주디스 버틀러가 말하는 ‘젠더 수행성’은 에머 오톨의 주요한 가설이다. 현재 나의 젠더는 사회적 아비투스 구조 하에서 그 구조에서 정상적인 여자로서 위치 지워지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형성된 젠더의 경향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젠더가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그리고 지금까지 ‘여자’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는 수행성에 의해 형성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과연 누군가의 성정체성을 사회 속에서 위치시킬 때 단지 성역할, 혹은 섹슈얼리티만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가이다. 성의 위치는 관계적이고 사회, 문화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복잡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계적인 성역할로 인한 억압은 모든 여성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억압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아니면 같은 여성이지만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억압구조가 경제적 계급에 의한 위치이다. 성노동자 여성의 위치가 그러지 않을까? 이들은 여성이라는 성적 위계에 종속되어 있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계급적 관계에 종속되어 동시적 공간에 위치한다. 이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단지 젠더 규범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꾸밈’ 노동을 해야 하고 전형적인 ‘여자다움’을 이용해야 한다. 에머 오톨과 같은 엘리트 여성, 예술가, 자유로운 활동가의 위치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성노동자 여성들에게 어떻게 읽힐까? 혹시나 부르주아적 페미니스트의 투정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상적’인 가정, 혹은 전형적인 여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난민, 이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여성 등 우리는 사회관계 속에서 단순히 성역할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된다. 이들을 모두 정치적 주체로 위치 지우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적 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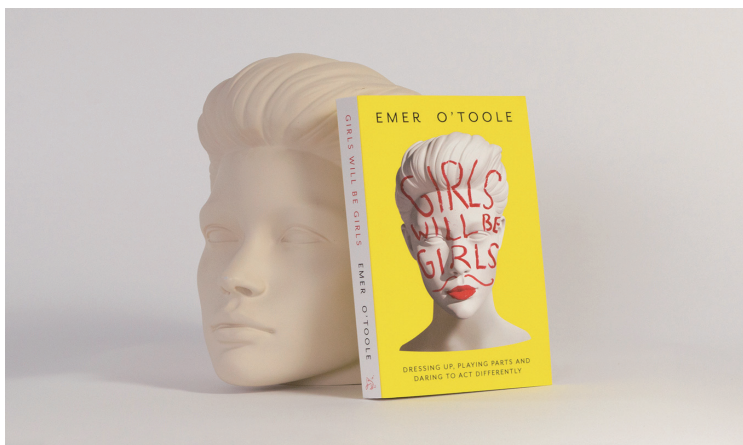
3. 이제 혁명은 소수에서부터

이 책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성’이라는 단일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보다 확장된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양한 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같은 여성이지만 여성 안에서 또다시 계급, 인종, 장애 등으로 인한 편견을 나부터 먼저 걷어내야 함을 느낀다.

무엇보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는 늘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의 모습은 과거의 낡은 그 모습이 아닐까? 과거의 혁명은 단일한 계급, 단일한 목표, 그리고 남성 중심의 거대

한 전복의 성격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된 성, 계층, 계급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혁명을 이야기할 때 불편한 지점들이다. 이제 는 혁명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페미니즘의 미덕은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크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내가 겪는 경험이 단지 여성이라는 젠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여러 정체성들로 구성되어있는 공간 속에 존재한다. 어느 곳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나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단일한 요소로 이루어진 개체가 아니기에 저마다 억압적 권력 구조 아래에서 개별적인 공간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나와 다른 입장의 그들을 만나고 경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주민을 위한 노동법 개론

글 홍승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 후로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업무상재해가 수시로 발생하여 치명적인 장해¹⁾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²⁾에 이르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현장에서는 희귀질환이 발병하고 있다.³⁾ 게다가 많은 기업가들이 봉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른바 갑질을 기업 안팎으로 행하고 있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 약자에게 하는 각종 부당한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다. 최근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갑질 대부분은 욕설, 강요, 협박, 폭행,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노동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든 일상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엥겔스는 "노동은 모든 인간적 삶의 첫 번째 근본조건이다. 노동이 인간 자신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노동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은 그 자체로 자기실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소득의 원천이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오늘날에는 고학력의 전문직종, 서비스산업, 재택근무 등 노동형태가 계속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주로 사용자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직업적 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

노동(勞動)을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힘써서 움직인다.」는 뜻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 된다.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냥이나 채집활동을 하는 등 원시시대부터 노동을 해왔고, 노동을 통해 문화를 이룩하고 발전시켜왔다. 수렵에서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노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노동은 사람의 신체·인격과 분리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깊다.

노동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은 '근로'와 같은 뜻을 가진다. 또한 '노동자'는 '근로자'와 같은 뜻이지만, 매체에서는 양자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법률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부 시각에서 물리적인 육체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정신노동도 노동이고,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으로 하는 육체노동도 같은 노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육체노동은 정신노동을 포함한다. 육체노동이라 할지라도 일의 순서나 작업방식, 작업량, 소요시간 등 다양한 사고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이란 무엇일까?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이다. 17세기부터 유럽 각국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으로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시민사회가 성립하면서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적 교환관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방식의 변화 등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대다수의 농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산업조직 속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사회계급인 노동자로서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노동법은 산업혁명 이후 사용자에게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질적인 기반이 없어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대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는 오히려 인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구속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를 종속노동이라고 한다. 종속노동은 크게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으로 나뉜다. 전자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으므로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시민법은 계약자유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책임주의를 3대 기본원칙으로 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약자유 원칙이란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

용 결정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만약에 노동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할 수 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미비하여 임대인(건물주)이 계약기간과 월세 등을 현실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에 주어지는 자유는 누군가에는 구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자유를 토대로 산업혁명 당시 유럽의 자본가들은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기 쉬운 아동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최초의 노동법은 영국에서 주로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유럽 각국에서도 이러한 법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산업 안전 확보 등을 추구하여 오다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데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산업화가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과 근대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하며 생성·발전되어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법

유럽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아주 단기간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역사적 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 1953년에 도입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며 노동 기본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근로 환경의 보호 받을 권

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국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극 개입하여 법률로써 그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단결력을 바탕으로 근로자 단체(노동조합)를 조직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현행 근로기준법⁴⁾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며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⁶⁾에 의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일정액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란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 하여야 한다.⁷⁾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와 노동자는 같은 말이지만 법률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노동법은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보호대상은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⁸⁾ 그러므로 자영업자처럼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직업인 의사라 할지라도 개인병원을 개업한 의사의 경우에는 근

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원 등에 고용되어 정해진 근무체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족하고 직업의 종류나 육체적 근로인지 정신적 근로인지 여부는 관계없으며, 또 수입의 많고 적음, 주업인지 부업인지, 계약 기간의 유무 또는 장단, 재산의 정도도 관계없다. 따라서 공무원·교원·의사·농업근로자·부업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관리직·영업직도 근로자이다. 교육·훈련과 근로제공을 겸할 수 있으므로 위탁실습생이나 수련의도 근로자에 해당한다.⁹⁾

그러나 현실에는 더욱 더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의 경우 주로 특정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의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정해진 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다른 회사의 물건을 배송할 수 없으며, 복장이나 차량 등을 회사의 요구에 맞춰야 하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상당한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근로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아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군

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산업의 발전의 힘입어 고용계약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지만 노동을 통해 생계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여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측의 의도도 있을 것이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므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보호필요성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⁰⁾

* 각주

- 1) 2016년 말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6명이 집단으로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 2)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이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 3)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이 발족했다.
- 4)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 한편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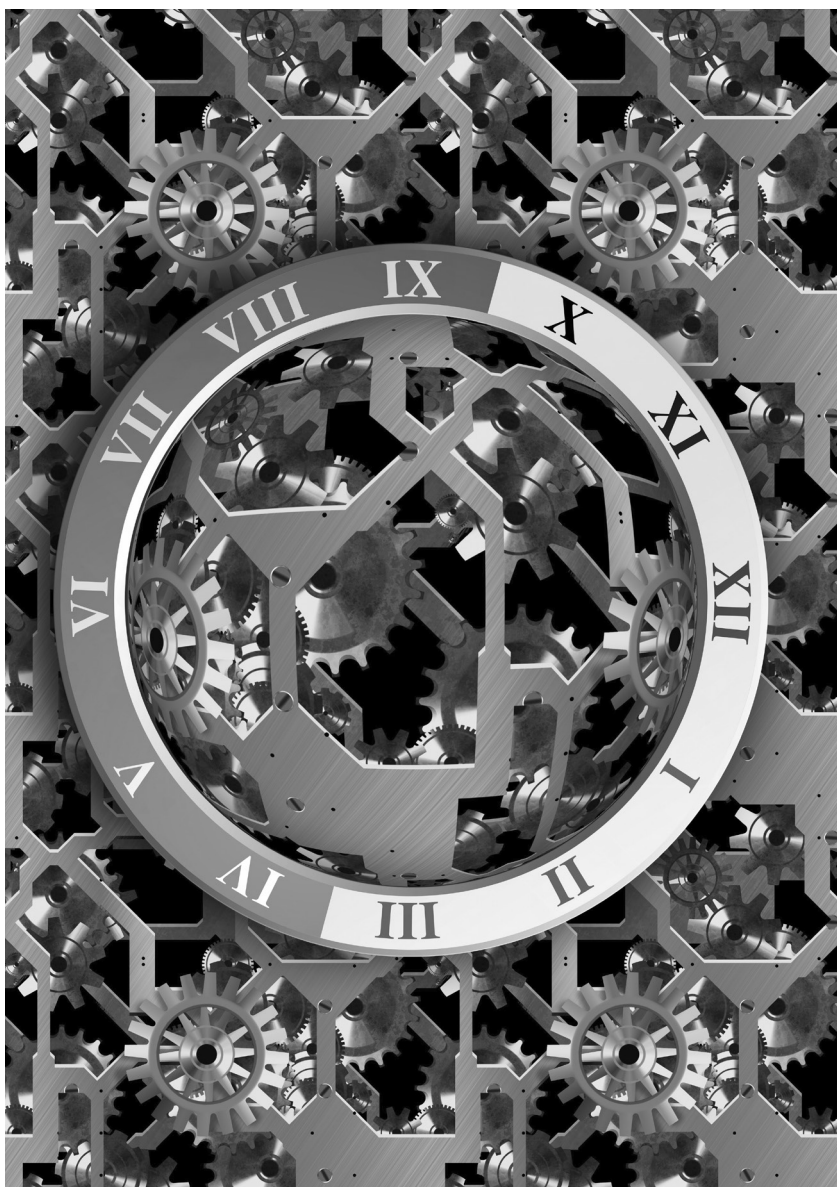
서는 ‘노조법’이라고 칭함)

7) 노동법은 근로자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호 하고 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이다. 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 의하면 전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후자는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처럼 후자의 근로자 개념이 더 광의로 정의 되어 있는 것은 실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에 고용될 의사를 가진 자들이 단결하여 대등한 교섭력으로 고용조건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8)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9) 임종률, 노동법 35p

10)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5조)은 앞서 언급한 유형의 직업과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부터의 보호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 한바 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마을에서
신나게
살아볼까?
- 『가난뱅이의 역습』

정리 남경순

2018년 정릉야채 좌담회는 <가난뱅이 자립대작전>이라는 책에 기대어 ‘마을에서 신나게 잘 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올로(You Only Live Once, YOLO) 등의 사회 트렌드가 유행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은 변화하고 있을까요?

<가난뱅이 자립대작전>의 작가 마쓰모토 하지메는 그의 첫 번째 책 <가난뱅이의 역습>에서 더 나은 생활이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사회를 정신 나간 사회로 바라보며 거기에 편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하라는 부자들의 말대로 살면 그들의 우수한 노예가 될 뿐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곤란한 일에 부딪히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멋대로 사는 게 인간적인 게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마을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 : 김가희

참여자 : 소나기(고경남), 코크니(송석진), 순찰대(오상호), 꾸니(이재욱), 다와(차정미), 김정훈(야채원장), 송민지(푸쥘), 오수빈(버티), 수정



자립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

김가희 :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소나기 : 저는 정릉동에 살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일어나는 많은 일에 관심이 많고 현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람과 공간 등 여러 자원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청년입니다. 장위동에 살고 있고 성북구 장월석(장위동, 월곡동, 석관동)에 관한 콘텐츠 발굴과 성북마을서포터즈 2기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꾸니 : 저는 토목공학과를 전공하고 건설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27살 청년입니다.

버티 : 저는 자립을 못하는 가난뱅이입니다.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예전부터 호박이닝쿨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와 : 마을잡지를 만들고 있는 다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채전장 : 호박이닝쿨책 전장입니다. 호박이닝쿨책은 도서관처럼 책이 있는 공간에서 웃고 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공간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놀았고, 요즘에는 책모임 위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책모임이 끝나면 늘 술을 먹지요. 아무튼 호박이닝쿨책을 2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크니 : 저는 독립하기 싫은 가난뱅이, 코가 커서 코크니라고 합니다. 가난뱅이의 자립이라는 주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제 생활이기도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푸젤 : 안녕하세요? 푸젤입니다. 현재 성북마을서포터즈 2기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가희 : 코크니의 자기소개가 인상적인데요,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나요?

코크니 : 예전에는 자립이 독립이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학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립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을 보고 나서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게 됐어요. 현재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현실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있다고 해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과 갈등이 없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한걸음 떨어져서 보면

서로 다른 개인과 개인이 만나 협력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독립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김가희 : 코크니와 하지메(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보면 어차피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그런 조건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은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했나요?

소나기 : 처음 제목을 보고 ‘가난뱅이가 정말 멋지게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보통 ‘가난뱅이’ 이라고 하면 직업이 없거나 늘 배고픈 상태의 사람을 생각했었는데 책에는 오히려 공유 공간에 대한 고민이 깊이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푸젤 : 저는 책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책의 내용을 보면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저자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이 이명박 정권 때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야채전장 : 지은이의 전작인 <가난뱅이 역습>은 충격적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밋밋하기도 했어요. 이번 책은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삶의 태도는 ‘놀아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혹시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조장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힘을 줬던 책인 것 같아요.

버티 :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혹시 책에 나와 있을까 궁금했어요.

순찰대 : 저도 나를 개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기업의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갔어요. ‘가난뱅이’라는 단어도 자본주의 구조나 위계질서 속에서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사용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와 : 책을 보면 ‘부자 동네에서 소란 피우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상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다 포기한 가난뱅이와 갑부들이 가장 여유롭다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와 권력은 가난뱅이들의 희생을 통해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가난뱅이와 갑부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는데 동감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가희 : 책을 읽고 저자가 했던 여러 활동 가운데 스스로 따라 해보고 싶다고 느낀 활동이 있었나요?

푸젤 : 재활용품 가게가 나오는데 책에서는 수리를 해서 파는 정도인데 저는 브랜딩을 해서 팔면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했어요. 괜찮지 않나요?

꾸니 :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년 전에 친구 지인들끼리 만든 공간에 초대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공간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대여해줘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가희 : 지은이처럼 일상적으로 재미있게 사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야채전장 : 가난뱅이의 역습을 보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해 봤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세금을 활용하려고 보고 싶은 책도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물을 아끼려고 샤워한 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 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색해지기도 하고 생활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거면 시골로 가지 왜 여기서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었어요. 굳이 시골에 가지 않아도 도시에 살면서도 반자본주의적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혁명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삶에서 뼈뼋하게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코크니 : 예전에 ‘백수문화생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는데요. 생각해 보면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정 : 예전에 인권도서관 자원봉사를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소설 습작품 중에 출판이 안 된 미공개 자료가 있는데 저의 개인 작업을 포기하더라도 계임 분야의 콘텐츠 사업의 자료로 활용해서 그 저작권을 공간을 사용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쓰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 시간 자체를 누리는 걸 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기초 소득이 중요하고 우리들 스스로 투표를 잘 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가희 : 기초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또, ‘공유’라는 것, 같이 쓰는 문화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주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코크니 : ‘아마추어의 반란’ 가게(하지메가 시작한 재활용품 가게)들을 보면 다른 상가 주인들과 친해지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가 마을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친해지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는 돈이 없어도 해결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순찰대 :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결과가 없어도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가희 : 요즘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와 : 궁금한 것이, 이런 책을 보고 호응하는 젊은 층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네요. 연배가 있는 분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20~30대가 이 삶을 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꾸니 : 제 주변 가운데 한 명이 떠오르는데요. 군복무 때 소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 때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스티커를 만들어 팔고, 수학 사이트를 개설해서 문제를 올려 학원에 팔면서 독창적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티셔츠도 브랜드화를 해서 팔아 수익의 10%를 어려운 나라에 기부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전역 후 계획에 대해 물으면 회사에 취직하기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푸쥬 : 제가 지금 취업준비생인데요. 취업준비생 가운데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배 중에 친구 3명이 모여서 건대 근처 지하 공간을 얻었어요. 본래 작업실로 쓰려다가 아까워서 카페를 같이 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독립서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년 반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로 했대요.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마케팅을 하는데요. 책방 이름이 ‘생산적 헛소리’예요.

코크니 : 상호부터 매력적이네요.

야책권장 : 옛날에는 생산적이지 못한 것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꼭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거든요.

다와 : 저자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분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가희 : 예전에는 196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인 전공투가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였다면 요즘은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 가난뱅이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책권장 : ‘가난뱅이’라고 하면 마음부터 비루해질 수 있는데 가난뱅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공포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해요.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심이 있는데, 물론 조장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가난뱅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보다 ‘나 이제 가난하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김가희 : 이런 가치관이 좋고 멋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을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순찰대 : 성북구가 서울에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 ‘동네’에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없는 편이에요. 처음 마을 활동을 할 때 모임이나 행사들을 기획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누가 자기 시간을 쓰면서 커뮤니티에 나오고 참여할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커뮤니티에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절반이 행사 주최자 분들이고 절반이 주민이에요. 그 중에서 마을 행사에 참여해보고 ‘활동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남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몇몇이라도 있으면 동네 행사를 만들고 술자리를 갖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꾸니 : 서울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웃과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마을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는 걸 활동을 하면서 알았어요. 새롭게 다가왔고 새로운 시각으로 마을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순찰대 :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늘 있어요.

코크니 : 저는 마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보통 기획을 해서 사업을 하면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참여자들의 경우 자기 일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도 개인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서 매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마을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까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혼자 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김가희 : 코크니는 여러 커뮤니티가 많은 것 같은데 재미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코크니 : 요즘은 잘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 책이랑 관련된 것은 작년에 하즈메가 서울에 와서 축제를 했어요. 그때 행사에 참여했는데 재미있었어요. 당

시 행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페이스북 북에도 페이지가 있어서 팔로우하면 소식을 볼 수 있고요.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긴 한데 책에 나오듯이 지원금만으로 꾸리는 것은 자립가능성이 없어서 지원금이 없으면 끝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푸쥔 : 책을 보면 본인들이 만든 가게가 없어져도 괜찮다고 하면서도 그런 활동으로 인해 인생에 차질이 생긴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1학년 때 학교 주변 주민센터와 연계된 활동이 지금 활동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김가희 : 소나기는 지금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소나기 : 사람이 좋아서 하고 있어요. 마을 활동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다만 시대에 따라 용어와 형태가 변화된 것인데 각박해진 삶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국가에서 도입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자, 관계의 회복만이 폐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죠.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 이런 정책이 중단되고 이



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마을 공동체가 몇 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촘촘하게 엮힌 신뢰 속에서 나오는데 성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저희는 이야기해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이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김가희 : 그리고 보니 하지메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성과나 성공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즐기라고 말해요. 재미있게 살자고 하면서 재활용 가게를 열고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하지메의 활동을 보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것이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큰 마트를 가지 않고 동네 가게를 애용하고 단골이 되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부터도 동네 단골 가게가 잘 없어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꾸니 : 옛날과는 달리 그 가게를 대체할만한 가게들 또는 체인점들이 집주변에 많이 생겨났고 가게 주인분들과 이전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 편리하고 좋은 가게가 나타나면 쉽게 가게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김가희 : 이웃과 인사하는 일도 쉽지 않고 혼자서 내 할일만 하기에 바쁘죠. 혼자가 더 편하고 누군가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게 싫기도 해요.

야채전장 : 사람들의 감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각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요.

김가희 : 하지메처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좋은 정보도 얻는다고 하는

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꾸니 : 주거환경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부분 빌라,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서로가 만날 기회가 없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다와 : 2016년에 성북구에 처음 왔는데 ‘성북청년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는 요즘 시대에 무슨 청년회냐고 했었는데 남편이 갔다 와서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갔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적었고, 대부분은 활동가, 예술가처럼 소속없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좋은 기억이었어요. 다양한 삶을 가진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모임은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함께 저녁을 먹는 모임이었어요. 지원 사업이 끝나면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한 달에 한번 과일을 사서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과일을 박스로 구입해서 나눠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과일을 핑계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랄까요.

김가희 : 만나고 싶은 욕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찰대 : 장위동에서 활동하다보면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게 돼요.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까요. 장위동에는 부마축제가 있어요. 마을 축제라는 게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기존에 해오시던 대로 자신들만 즐길 수 있는 축제 형태를 고집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김가희 : 세대 간의 갈등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라고 할 때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야채전장 : 2년 전에 책방 파티를 기획하다가 관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어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관과 하다 보니 관의 기대와 목적도 있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치더라고요. 결국 일정 문제로 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일을 겪으면서 ‘속 편하게 살자. 지원금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가희 : 계속 공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순찰대 : 장월석 모임도 장위도시재생센터를 일주일에 한번 씩 이용하는데, 내년에도 공간 지원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버티 : 저는 수원에서 스터디 서클을 주 1회 하고 있어요. 서울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학습모임인데요. 담당자분이 스터디 서클을 기획할 때는 20~30대 청년들에게 공간이나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꾸렸대요. 그런데 시에서는 성과를 내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나 봐요.

김가희 : 스터디 서클이라면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인가요?

버티 : 둥글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직장인들을 위한 ‘사표의 순간’, 꿈은 없지만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드림피스’,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려라 참깨’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오프라인 모임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수정 : 저는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세입자인데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인가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상표등록을 하는데 70만원, 비영리법인을 등록하려면 110만원이 들것 같더라고요. 인가 비용이 필요해서 단기 알바를 며칠 했어요.

내년 1월에 재계약인데요. 제가 건물주가 아니니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김가희 :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자신만의 삶의 방향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좌담을 마칠까합니다.

야채전장 : 어릴 때는 세상을 좋게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에 돈을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40대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나쁜 놈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다가 세상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후부터는 즐겁게 놀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이 책을 만나면서 ‘돈, 돈 거리지 않아도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크니 : 저는 ‘가난뱅이’라는 단어를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정체성으로써 바라봤어요. 책의 85쪽을 보면 ‘덧붙여, 한쪽은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 팔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사서 버려야 유지되는 이런 소비사회에서 물건을 재활용하는 일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말에서 느껴지는 바가 컸는데,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삶으로써 가난뱅이의 자립을 생각하고 받아들이었어요.

꾸니 : 저는 삶을 살아갈 때 ‘도전’, ‘소소한 행복’을 지키며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게 많은데 재미있는 일을 해도 계속하면 무료해지잖아요. 그럴 때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소한 행복은 큰 행복을 바라다보면 작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것을 감사하다보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가희 : 요즘 소확행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푸젤 : 저는 오늘 좌담회를 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도 재미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그게 더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김가희 : 오늘 처음 만나서 어색한 자리였을 수도 있었는데 큰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책을 매개로 이야기한 자리였으면 충분한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하는가가 늘 고민인 것 같아요. 끝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야하나 봐요. 결국 사람들이 만나고 모여서, 공간을 만들고 유지해가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18
야책문학상

바람이 분다

김은하

바람이 분다
골목 사이를 돌고 돌아
틈새를 비집고

바람이 분다
벽에 부딪혀
가슴 밑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울음소리

바람이 분다
가슴에 맺힌 설움을
토해 내듯 오늘도
변함없이 3월의 바람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여기저기 흘러들
돌고 돌아 내 귀에
나의 가슴에 멈춘다

두물 머리

김 옥 희

산등성을 수놓은
오색 단풍
가슴으로 안고

두물머리 강물 위에
몽게구름 이불삼아

연밭 위에 고추잠자리
수줍게 비단 날개짓 한다

건너편 골짜기마다
울긋 볼긋
그리움이 영글어 가네

엄마 가슴으로
물들인 꼬까옷
두물머리 강물 위에
펼쳐본다

파도 소리

이영숙

조용한 새벽
한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
큰 파도 작은 파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조용히 귀기울여본다.

우리네 인생 파도 소리와 같은 것
큰 일 작은 일 굶은 일 기쁜 일 어느 하나
허술히 보낼 수 있었던가
어느 파도 하나 밤잠 안 설친 적 있던가

60을 훌쩍 넘고 보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온
모든 이들이 고맙다.

지금도 파도 소리 내 귓전에 맴돈다.

서기 2069년

이밥

1.

1969년생인 나의 기대수명은 내가 태어났던 그 해를 기준으로 60세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069년 오늘 난 만 100세가 되었고,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태어났던 그 해에 100세 노인이 있었다면, 그의 허리는 100도쯤 꼬부라져 있었을 것이고 이빨과 머리카락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며 얼굴과 손 말고도 몸 전체가 깊은 주름으로 자글자글 번쩍이고 있었을 것이다. 물기 하나 머금지 못한 채 물방울이 데굴데굴 굴러갈 것 같은 그런 피부 위에 움푹 박혀있었을 그 노인의 표정은 아마도 웃어도 우는 것 같고 울어도 웃는 것 같았겠지. 그러나.

그 보다 꼭 100년이 지난 오늘 어떤 100세의 인간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

어느 누구의 허리도 꼬부라져있지 않고, 이빨과 머리털도 모두 제자리에 고스란히 박혀있다. 피부는 주름도 거의 없이 뽀얗기만 하다. 힘은 또 어떠하고? 아주 오래 동안 일을 해도 누구 하나 피곤해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술을 마신 다음 날도 숙취 하나 오지 않는 말끔한 정신으로 잠을 깨곤 한다. 서기 2000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웰빙 웰빙 거리며 누구나 '잘' 살고 싶

어했다. TV를 켜면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그래야 건강히 오래 산다, 젊어보려면 이런 운동을 해라 저런 운동을 해라, 푹푹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잘 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이구동성 외쳐대기 시작했는데,

서기 2020년, 인간 최장수 기록이 갈렸다.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현의 한 여성이 11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채 4년도 지나지 않아 119세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전까지 최장수를 기록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일본이나 남미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살던 여성들이었고, 이 여성들은 대개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있었는지 어땠었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 없이 세상을 살았었으나, 새로이 등장한 119세의 사람들은 모두 공장노동자로 힘겹나 쓰며 살던 남성들이었다.

119세라고는 해도 이 남자들은 얼핏 80세로도 보였고, 70세로도 보였다. 아마도 그 때부터였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인구센서스에 단 한명의 사망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마도 그 때부터였다. 그 도시들의 출산률이 거의 0%에 수렴된 때도....

얼핏, 이 도시들의 인구는 그 때부터 변동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웬걸!

아마도 그 때부터, 이 도시들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어떤 억제책도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 죽지 않고 살겠다는 인간의 기본 욕망을 어느 것이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세상은 죽지 않는 도시인들과 죽는 오지인들로 구분되었다. 물론, 전 세계 오지 어느 곳에도 젊은이들 - 대체로 100세 이하면 젊은 층이었고, 이들은 모두 일을 하거나 일을 찾고 있다 -은 없었다. 오직, 이미 늙어버린, 즉 이미 기운이 다해 일을 할 수도 일을 할 의향도 없는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 이 노인들 말고 죽는 부류들이 있긴 또 있었다. 하지만, 영생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만났거나 본 이는 없었다. 그저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있단 소문만 있을 뿐이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6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2005년 즈음 나타나기 시작한 소위 초식남 신드롬이 그 아랫세대는 물론 여성 집단들에게도 전파된 탓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90살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했고, 80살이 넘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어린 시절 여자와 혹은 남자와 사랑을 해봤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대체로 80살 미만의 사람들은 사랑이나 섹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2.

2000년을 전후하여, 모든 것은 융합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완파한 후, AI는 끝없이 진화했다.

2025년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의 찬성으로 '인간 AI 융합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기다리더라도 했다는 듯, OECD 회원국 모두가 이 융합법을 도입했다.

2030년, 전 세계 대도시의 모든 인간들은 날개가 달린 진초록의 망토를 입게 되었다. 각자의 집에서야 입던 벗던 상관없지만, 거리와 일터에선 모두가 진초록 망토를 착용해야 했다. 법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시속 300KM로 날아다니는 거리를 맨몸으로 다니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망토의 색이 진초록인 것은 태양열을 보다 잘 흡수하여 망토의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사람의 신진대사에 직접 간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때부터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광합성을 하게 된 것이다. 맞다. 초식남을 넘어 모든 사람들은 풀이 되었다.

2000년 초반부터 아무리 아픈 사람도 약의 힘으로 모두 100살은 살 것이라 기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모든 도시인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 기대한다. 단, 새 망토를 구입하거나 최소한 임대라도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3.

태양력으로 움직이며 광합성을 통해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도시인들이 일을 하는 곳은 지하 500미터 깊이의 광산들이다.

태양을 이용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왜 지하광물들이 필요한 것일까? 그러나 지하에서 일하고 하늘을 나는 도시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질 않았다. 그들이 채취한 광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태양력의 시대에 왜 셰일석유를 시추하느라 끊임없이 암반들을 파괴해야 하는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저 소문만 있었다. 광물들과 석유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간다는 소문만.

그저 소문만 있었다. 암반이 너무 깨져버린 지구의 중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그 때문에 수성, 금성, 지구, 달, 화성의 궤도가 엉클어졌다고.

또 하나의 소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문만은 누구도 대화의 주제로 삼진 않았다. 궤도가 흐트러진 이 네 개의 행성이 곧 태양의 궤도 속으로 빨려들어 갈 것이라는 소문은.

오래 전, 영생이 없었던 인간들은 가끔 죽음의 존재를 자각하며 흠칫 놀라긴 했지만 대부분의 인생동안 거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은 것처럼, 지구가 곧 태양궤도로 빨려들어 갈 것이라는 소문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적은 거

의 없었다.

도시인들은 그저 영생일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자그마한 콘크리트 일인 아파트에서 잠을 깨선, 광합성 망토를 걸친 후 땅속으로 날아든 후, 하루 8시간 동안 압박을 깨다가 다시 망토를 걸친다. 광산밖에 진열돼있는 동안, 충분히 빛을 받아둔 망토는 사람들 몸에 걸쳐지는 순간 사람들의 몸속으로 양분을 주입시킨다. 집으로 날아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다는 소위 죽는 이들이 벌이는 TV 쇼를 보며 오늘 있었던 육체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낸다.

4.

2020년, 자본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전까지 약 백오십여년에 걸쳐 약의 힘으로 사람들을 일단 오래 동안 살려보았는데, 세대를 바꿔가며 출산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을 세대마다 교체하는 것보다, 아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 부리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 즉 사랑과 섹스와 놀이와 예술, 스포츠,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건 역시 생산수단을 가진 집단, 즉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집단들만 즐기는 것이다.

지구의 중력이 느슨해지고 화성까지의 궤도가 엉클어지는 것을 이미 예상한 자본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작은 행성들의 궤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목성과 토성의 궤도로 자신을 옮기기로 한다.

삶과 세대는 토성의 궤도에서 잇기로 하고 목성엔 아주 거대한 전파 송수신기만을 세운다. 타이탄별에선 여전히 세대가 이어지고 예술과 유행이 뒤바뀐다. 영생을 얻은 지구의 노동자들은 목성에서 중계된 타이탄 아이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고 그들의 미모와 패션을 한껏 부러워하며 TV화면 속으로 빨려들다 잠이 든다. 그리고 일. 그렇게 영생의 삶이 이어진다.

5.

내가 태어나기 꼭 이백년 전, 즉 1769년, 영국의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한 후, 농토를 잃은 농노들이 땅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곤 곧, 공장 즉 자본에 예속되었다. 그 후 그들은 해방된 땅을 볼 순 있었지만, 그들을 예속시킨 자본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건 자본의 그림자들뿐이었다. 돈, 패션, 집, 아이돌과 스포츠 스타 등등.

내가 태어난 지 꼭 백년 후, 즉 2069년 난 여전히 살아있다. 지구를 잃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난 타이탄의 자본을 여전히 보지 못한다. 오늘 밤도 난 그들이 목성에서 중계하는 그림자들을 보고 있을 뿐이다.

여행하는 책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보지 못한 그들과 공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사하고 환상적인 일일까?

정릉야책 첫 편집회의 날.

편집 위원 중 한 명이 책의 여행을 제안했고,

그림책 <새내기유령>이 선정됐다.

책은 6월 6일을 책방을 떠나 5개월 시간동안
전국을 돌아 11월 8일 호박이닝쿨책에 도착했다.

그 여정을 함께 공유한다.

한번 보니 또 보고 싶었고,
두번 보니 또 보고 싶었고,
세번 보니 또 보고 싶었다.

- 혼박이넝쿨책 진장 -
2018. 06. 06

하늘로 날아 올라
크게 문장을 터트려.
그리 상큼한 죽음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경쾌한 유연성이
내게 와 주길 ^^
새배기는 언제. 어디서나
서툰 반응하다.
유쾌한 죽음의 이야기.
그리 청결한

2018년 6월 11일.
저는 정릉에 사는 미역수입니다.

죽음이 푸른빛이라면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죽음은 새 탄생의 시작이다.

하지만 죽어도...

바들거려야 한다면...

강 ~ 편히 쉬어가노코이

아니티라는 ... 근데 ~

다행이다.

친구도 있고, 하인도 있고...

죽음이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일산 flatwhite 2018. 6. 11



2018. 6. 13

일산의 Mellow

< 유령이 태어나는 곳, 별 >



네 노명이라 생각했음
~~연애~~ 길을 가다
 꼭 그려진 길만 걸어야 하는 건 아니다.
 길을 걸으며 만난 인연들과
 내 마음을 따라가다보면
 결국,
 내가 걸어야 했던 길을 걷게 되는 거 같다.

2018. 7. 6.
 제주도 남쪽 끝에서,
 아델리아강.



선데이의 첫 시작은
 마을 아파게 끝났어도
 용기 있는 두번째 시작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할 수 있길.
 새내기 유령에게,
 그리고 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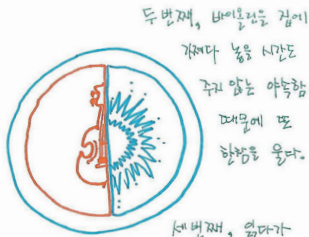
RA
RA
RA

4
RRA
RARRR



2018. 8. 8
 서울 근처에서
 행복을 꿈꾸는 중2.
 유령님.

저를, 영성적으로 배움을 깨닫기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한숨을 쉰다.



세 번째, 알아가

이 그림을 보고한다. 배움을 알아가 한 걸음 맞출 때가

그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이

우리의 밝은 마음을 밝게 빛나게 해준다

그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이

세 번째, 알아가 한 걸음 맞출 때가

2018.11.14

종교를 다룬다.

먼저 어디에서.

세 번째, 영성적으로 알아가 한 걸음 맞출 때가

무엇으로도 읽을 수 없다.

나 세 번째, 영성적으로 알아가 한 걸음 맞출 때가

세 번째, 영성적으로 알아가 한 걸음 맞출 때가

그들이 나를 알게 해준다.

나에게 들어오는 영성을 그들이 밝게

다행 그걸로도 그들 모두 건 강하다.

영성을 그들이 읽지 기다려 봐야 한다.

9월 12일

가을 문예회

「새내기 유령을 알고

2018. 11. 14. 수

오숙현

나도 언젠가

새내기 유령을

만나면

저 하늘의 밝은 별이

될 수 있을까?

새내기 유령이

나를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거침없이 우아하게 날다가

꼭 만나야 할 텐데, 나를.

I·SEOUL·U

새내기 유령이 유령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야책은 너무 기쁘

그를 위한 파티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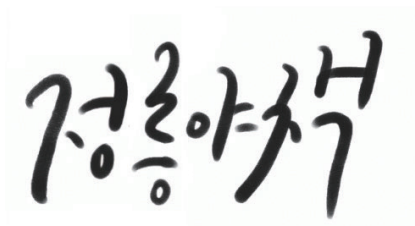
그 모든 소식을 듣고 감동한

야책의 유령이 각시

오숙현 선생님

그 여정에 동참했다.





정릉야책 2호

펴낸날 2018년12월 21일

편집위원 김가희 남경순 이연수 차정미 허영미 홍승완
디자인 다와

펴낸곳 호박이닝쿨딩쿨
기획/편집 호박이닝쿨딩쿨 편집위원회
지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호박이닝쿨딩쿨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45-3